제8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해외연수기

해외연수기 발간에 대하여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그동안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그 내용을 책으로 펴내는 제8대 의원들의 해외 연수기 발간에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문화와 문물은 물론 선진화된 각종 사업과 시책 등을 두루 둘러보는 의원 여러분의 해외연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정책을 기획 발굴하고 필요한 부분을 도입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귀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모두가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 얻은 소중하고 풍부한 연수 내용이 우리 전주시정과 의정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기가 대외적으로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매우 의미가 있으며, 이번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연수에서 배워 온 많은 경험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외유성 여행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알찬 기획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해외연수야 말로 국제적인 안목을 확대하고 선진 기법을 도입하며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해외연수기 책자를 통해서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 마인드를 함양하고 해외연수 내용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2007. 11
전주시의회 의장 정 우 성

*책*을 펴내며

소용돌이치는 대한민국의 정치변화 속에서도 어김없이 국화향 가득한 정해년 가을이 되었다. 전주를 안은 어미산 모악의 품은 언제나 넉넉하기만 하다. 병풍같이 늘어선 남고산성 중바위 그림자가 전주천에 드리우고 있다.

근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고을! 천년전주! 기린(麒麟/기린봉)이 미래 천년을 위하여 기지개를 하고 와룡(臥龍/완산칠봉)이 승천을 준비하고 있다. 오색찬란한 완산칠봉의 추상화는 전주의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건지산에 어김없이 늘어진 만추의 노을은 뫼를 찾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리운 임이라도 부르면 어떨까? 건지산 너머 송천뜰에 기적소리 또한 크다.

멀리 호남벌에 회오리바람 치니 기러기 북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가을밤 빗소리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의 가슴에는 어느덧 찬 서리가 내린다. 화살같은 세월 속에 전주시의회 2007년 정례회가 끝나면 무자년(戊子年)이 시작될 것이다.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늘과 실과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시민들은 의회가 공기와 같이 중요하기에 염려와 성원을 동시에 보낸다. 지방의회가 의정비 조정으로 시끌벅적 하지만 그것은 다 염려하는 쪽이나 인상을 주장하는 쪽이나 주민들을 위한 지방의회의 충실한 역할을 기대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국내외의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공직자나 모두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곱지 않은 눈으로 본다. 일부 몰지각한 분들의 지각없는 행동들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연수를 한다면 참으로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그것은 공직의 업무에 크나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이 다녀온 연수기록은 참으로 많다. 글과 사진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 집약시켜 시의회에 보존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참고로 한다. 그중 지난 해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동유럽 쪽의 연수와 최찬욱 부의장을 비롯한 캐나다 연수와 임병호 의원을 비롯한 일본 연수 부분은 비록 글의 형식은 달라도 그냥 서재에 꽂아 놓기는 아까운 자료들이다. 김남규 의원의 기록문, 오현숙 의원의 기록문, 백종순 계장의 보고서, 김상휘 의원의 글과 본의원의 여행수필이 모아졌다. 여기에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소중한 사진자료를 첨부 하였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조지훈)를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최주만)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현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철영)에 속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연수에 함께 참여 하였다.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지)에서는 이 뜻 깊은 자료를 집약하여 발간하는 일을 그냥 두서없이 하기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편집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을 김창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고 유재권 의원, 김현덕 의원, 박혜숙 의원이 참여 하였고 본의원은 말석에 앉아 서문을 작성하는 영광을 안았다.

무릇 기록이란 역사의 중요한 증거로 남기 마련이다. 제8대 전주시의회의 이번 연수기록의 간행이 앞으로 시민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권장하는 국내외 연수가 되는데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비판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더불어 지방의회도 치열한 비판과 진솔한 반성 속에서만이 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얻어 발전할 것을 확신 해본다.

노송광장을 바라보면서 양용모가 쓰다.

Contents

07 제1반 동유럽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23 제2반 캐나다 (토론토, 캘거리, 벤쿠버)

53 제3반 일본 (가나자와)

81 제4반 일본 (도쿄, 요코하마)

제1반 동유럽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 연수국가 :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 연수일정 : '06. 10. 12 ~ 10. 20
| 글 쓴 이 : 홍보담당 백 종 순
| 연수인원 : 21명
정우성 의장, 김명지 운영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 국주영은 · 권정숙 · 유재권 이명연 · 김남규 · 구성은 · 박혜숙 · 이원택 · 김창길 · 유영국 · 국철 · 김주년 의원, 황호준, 백종순, 정영석, 김현우

1. 연수의 법률적 근거

의회규칙 제14호(2001년 3월 8일 제정)에 해당하는 "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2조("적용범위") 4항("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2. 연 수 국 가

동유럽 5개 국가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3. 연 수 기 간

2006. 10. 12 ~ 10. 20 (8박 9일)

4. 연 수 목 적

1) 전주시의 녹지 및 문화재, 사회복지, 교통 및 도시건설과 관련된 동유럽 도시행정의 선진적 모범사례 및 기법 등에 관한 최신 사례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2) 국제적 안목 확대와 실질적인 현장 체험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정 활동과 시민 복지 증진.
3) 선진 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전주시의 비전과 주요 시책에 적용 및 개선 방향을 제시, 상대적 경쟁력을 강화.

5. 연 수 분 야

1) 녹지 및 문화재 보존
2) 사회복지 및 교통 분야
3) 도시, 건설, 도로 분야

6. 방문 또는 연수 기관 및 시설

1) 체코 : 프라하/부르노 시청(지역개발부, 교통국, 문화재 관리국), 프라하성 등
2) 폴 란 드 : 오시비엥침 아우슈비츠 박물관, 크라쿠프 소금광산,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인프라부서) 등
3) 슬로바키아 : 타트라 지역 자연생태시설 등
4) 헝 가 리 : 부다페스트 도시공원 시설, 부다지구 건축 및 하천, 국회의사당 등
5) 오스트리아 : 비엔나 시청, 비엔나 신/구시가지, 다뉴브강 생태시설 등

7. 연수단 구성

1) 총 21명

2) 단장과 부단장을 중심으로 하여 3개 조로 구성됨

3) 각 조는 조장 1명과 위원회별 소속 의원 각 4명, 직원 1~2명으로 구성됨

8. 연 수 일 정

1) 일 정 표

날 짜	방문국/지역/도시	방문 기관 (해당 활동조)	연수 과제/활동
10. 12(목)	한국 출발(전주→인천공항) → 체코 도착(프라하→브르노 이동)		
10. 13(금)	• 폴란드 / 오시비엥침	• 아우슈비츠박물관(1 조)	• 박물관의 역사탐방 • 박물관 보존과 관광정책에 관한 인터뷰
10. 14(토)	• 폴란드 / 비엘리치카 크라쿠프 • 슬로바키아 / 타트라	• 크라쿠프 녹지 (2 조) • 크라쿠프 시청/의회 (1,3조) • 비엘리치카 사회복지시설(2 조) • 소금광산(전체) • 타트라 산맥 자연경관	• 녹지 보존 실태 파악 • 친자연환경 균형책 • 사회복지 실태 및 운영 • 신도시건설과 교통정책 • 자연친화적 도시경관조성
10. 15(일)	• 헝가리 / 부다페스트 부다지구	• 부다페스트 시청/의회 (전체) • 헝가리 환경부 (1 조) • 부다지구 (3조) • 국회의사당 (전체)	• 구도시계획과 건설 정책 • 도시공원 관리-보존 실태 • 건축양식과 이용 현황 • 대중교통이용과 노선분석 • 의회 운영 실태 파악
10. 16(월)	• 오스트리아 / 비엔나	• 비엔나 시청 (전체) • 다뉴브강 (2 조)	• 사회보장제도 파악 • 신 · 구시가지 보존-개발 정책 인터뷰 • 시영/대중교통 이용실태 전반에 대한 인터뷰 • 하천 수질 및 생태시설
10. 17(화)	• 오스트리아 / 짤츠브르크 짤츠캄머구트	• 녹지 조성지구 (1,2조) • 문화재 보존지구 (1 조) • 오폐수 처리시설 (2,3조)	• 녹지, 문화재 보존지구 실태 조사 • 홍수대책, 오폐수 처리시설
10. 18(수)	• 오스트리아 / 짤츠브르크 체스키르품노프	• 체스키르룸노프성 (1 조) • 블타바강 관리 (2,3조) • 농림환경수력부 (2,3조)	• 문화재 보존과 도시 미관 • 하천 수질 보전 및 이용 • 관광산업 연계 방식
10. 19(목)	• 체코 / 프라하	• 국회의사당 (전체) • 프라하시 지역교통국 (2 조) • 프라하성 (1,2조) • 보헤미아의 숲	• 의회 운영 및 지원체계 • 트램과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시스템 현지 조사 • 신-구시가지 교통, 건설 • 삼림 보존 및 관리 실태 • 문화재 건축 및 조형물의 양식기법 조사
10. 20(금)	체코 출발(프라하) → 한국 도착(인천공항→전주)		

연수 대상국 및 기관/시설의 소개

연수대상국 지도

| 폴란드

■ 공식명칭은 폴란드공화국이다. 면적은 312천㎢(한반도의 1.4배)이며 인구는 3천800만명, 수도는 바르샤바이다. 폴란드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카톨릭이 95%이상이다. 빼어난 문화유적을 갖고 있으나 최근 서구화로 심각한 주택난에 직면했다.

■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는 수난을 버텨온 나라이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옛 것을 아끼는 폴란드인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옛 도시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모두 4건의 유네스코 문화 유산이 있으며 억압적인 공산체제 기간동안 미술과 연극을 통해 저항을 표시했었다.

1) 아우슈비츠(오시비엥침) 박물관

■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최대의 강제수용소이자 집단학살수용소인 아우슈비츠수용소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 터는 현재 국립박물관이 되어있다. 28개 민족 400만명의 목숨이 이슬처럼

사라져 간 이곳 수용소들은 전쟁이 끝난 뒤 당시의 시설물과 머리카락 등 희생된 사람들의 유품을 그대로 보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곳을 방문하고 나면 전쟁의 참혹성과 함께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 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1940년에 설립된 이 수용소는 설립 당시 14동의 단층건물과 6동의 2층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증개축을 통해 모두 28동의 수용시설이 남아 있으며 전시구성과 기법이 우리와 크게 달라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었다.

아우슈비츠 박물관

2) 비엘리치카 및 크라쿠프

■ 비엘리치카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240㎞ 떨어진 작은 도시로 이 곳에 있는 암염광산이 1978년 유네스코 세계역사 문화유산에 지정된 후 유명해졌다.

3) 소 금 광 산

■ 중세 때인 1290년부터 소금을 채굴하기 시작하고, 14세기부터 색슨족 광부가 비엘리츠카에 와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였다. 1826년부터 광산의 소금물을 온천수로 이용하고 소금으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를 조각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중반부터 광산의 일부를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개조 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지정 후인 1996부터 소금 채굴을 중단한

상태이며 지하 수 백 미터에 소금 조각상이 즐비하다.

4) 크라쿠프

■ 우리나라 경주에 비길 만한 고도이다. 인구 약 75만명이 살고 있으며 7세기부터 발전한 이 도시는 14세기에 이르러 학문과 예술이 전성기를 맞았다. 2차 세계대전의 참화속에서 인구 600만명을 잃었지만 이 도시만은 피해를 입지 않아 197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 곳의 중심지는 구시가지의 리네크글로보니 광장이며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다녔다는 야기에오 대학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즐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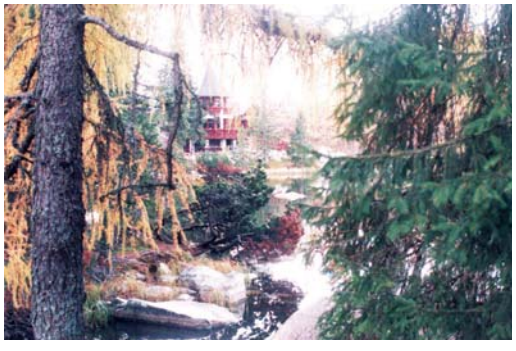
크라쿠프 녹지공원

■ 중심 광장의 직물시장은 여행객들로 붐비며 옆에 있는 구 시청사옥은 개조되어 박물관으로 꾸며 졌고 지하에 술집이 마련되어 이채롭다. 도심지 내 바벨성은 16세기에 세워진 대표적인 고딕건물로 주변의 녹지공간이 매우 아름답고 이 곳 역시 현재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있으며 수 백년이 된 건물들을 다시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도시정책에 매우 호감이 갔다.

| 슬로바키아

1) 타 트 라

■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슬로바키아를 관통하여 폴란드로 넘어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며, 반대로 폴란드에서 슬로바키아로 넘어올 때 머무는 곳이다. 타트라는 2,400m가 넘는 5개의 봉우리가 장관을 이룬다. 이 봉우리들은 지구상 가장 협소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산맥으로 불리어 질 만큼 한눈에 모든 산들을 볼 수 있다. 헝가리를 가기 위해 경유했을 뿐이다.



| 헝가리

■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헝가리는 9만3천㎢의 면적에 인구 1천여만명, 수도는 부다페스트이다. 1989년 10월 헝가리 의회는 공산당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 헝가리의 사회복지제도는 산업재해수당과 실업수당,출산수당, 장애수당, 노령수당 등을 지급, 복지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의학수준도 대체로 높은 편이나, 서구화 이후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 동구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성장세가 빠른 나라다.

1) 부다페스트

■ 다뉴부강(독일어-도나우)을 중심으로 '부다'와 '페스트'로 나뉘며 합스부르크 왕조의 건축양식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동유럽의 장미' '다뉴브의 진주'로 불려진다. 인구 210만여명이며 중세의 건물들이 2차 세계 대전에 많이 파괴되었으나 이후 건물들을 재건, 중유럽 최대도시를 만들었다. 야경이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시 / 사 / 점

■ 할인카드 발행

○ 시가 발행하는 부다페스트 티켓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 노면전차(트램)를 동시 이용할 수 있으며 박물관과 지정 식당 등을 이용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이 카드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관광객들은 식당이나 시내 관광, 문화상품, 온천 등지에서 사용한다. 48시간 카드 HUF 3700 (한화 17,000원 정도), 72시간 카드 HUF 4500(한화 22,000원 정도)

■ 보행자 위주 교통체계

○ 시민들이 도심을 지나는 다뉴브강(도나우강)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2차선의 천변 도로를 일부러 확장하지 않고 있으며 천변도로는 반드시 전차길-인도(자전거도로)-차도-인도-강 순으로 만들었고 곳곳에 사람이 눌러 신호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신호체계를 만들었다.

■ 서울시와 협정서 체결

○ 지난 3월 서울시와 우호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고 도시관리와 환경, 경제, 과학, 문화예술 관광분야 등과 상호협력을 꾀하고 있다. 특히 두 도시는 서로 명예시민증을 교환하고 있으며 투자통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다페스트 시청

2) 국회의사당

■ 영국 런던의 워스트민스터 사원과 비교되는 다뉴브강변의 빼어난 건축물이다. 1843년 건물을 짓기로 결정한 다음 독립전쟁을 거치고 나서 1884년부터 매일 1,000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만들기 시작하여 1904년에 완성했다. 이 건물은 약 700개의 방과 강변을 따라 길이 268m, 앞뒤로 118m의 폭을 가졌고 헝가리가 건국한 해 896년을 기념하여 첨탑의 높이는 96m로 했다.

3) 헝가리 환경부

■ 헝가리의 전반적인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헝가리는 최근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까다롭기로 이름난 EU의 환경기준에 전력을 쏟고 있다. 환경기준은 하수처리에서부터 폐타이어와 폐건전지, 가전제품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하수처리의 경우 현 시설의 40%가 기준에 미달돼 정부차원에서 오는 2015년까지 41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폐타이어, 폐건전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늘릴 계획이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어원은 독일 고어(古語) '외스터라이히'로 '동쪽의 나라'라는 뜻이다. 지리적으로 북쪽에는 체코공화국, 서쪽에는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인접하고 있으며 중부유럽에 위치, 국토면적은 83,858㎢로 한반도의 약 2/5크기이다.

■ 수도 비엔나(빈)는 인구가 156만명으로 국제적인 관광도시이다.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며 해마다 5월과 6월에 열리는 음악축제를 보기 위해 전세계 음악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빈의 상징인 슈테판 사원을 비롯해 베토벤,슈베르트,주페,볼프 등의 묘와 묘지가 있는 음악가 묘지와 호프부르크 궁전 등 관광명소가 즐비하다.

1) 비엔나 시청 교통국

■ 비엔나 시청 교통국은 도심공간을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심지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도로와 교통정책이 기본적으로 도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한다는 데서 비엔나의 도심미관 정책을 엿볼 수 있었다.

■ 대중교통수단은 노선이 단순한 지하철과 트램으로 불리우는 시내전차이다. 특이점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승차권(티켓)이 지하철과 시내전차, 버스, 고속전차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며 승차권의 종류도 1회권, 1회권 선불 5매 세트, 정한 시기에 마음대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 이용객 편의에 가장 우선을 두었다.

시 / 사 / 점

비엔나시의 교통환경정책

■ LPG 버스

○ 비엔나시를 운행 중인 500여대의 버스가 LPG버스이다. 시는 대기오염과 소음 등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미 35년 전부터 LPG버스를 운행해오고 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3분의 1정도가 생산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유해가스가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등 다른 유럽나라의 LPG버스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 자 전 거

○ 비엔나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고 싶으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자전거를 타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비엔나에서 운행되는 지하철 노선은 짧고 택시는 기본 요금이 보통 5유로(6천원)로 비싼데다 대중교통이 밤 11에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데서 나왔다.

○ 지하철에서는 접이식 자전거를 들고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지하철 입구나 버스 승강장 주변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반드시 설치돼 있다.

2) 비엔나 시청 공원관리부

■ 비엔나 시청 공원관리부(Department for gardens and park)는 녹지관리와 공원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철저한 공원 관리 시스템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유지하며 가로수의 생육실태를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등 예술의 도시 면모를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꽃 박스를 건물에 설치, 미관을 돕는다.

시 / 사 / 점

■ 비엔나시의 세수확대

○ 주와 시를 겸하는 비엔나시는 오스트리아 전체예산의 30%를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 시청사를 임대하는 등 세수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대하는 공간은 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 일반 사무실이며 임대 사무실은 각종 회의장과 연회장, 무도회장, 공연장, 전시장 등으로 활용된다. 이밖에 시는 세입증대를 위해 도로 광고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3) 오스트리아 농림환경수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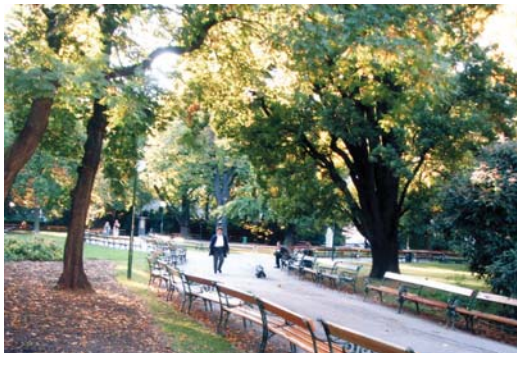
■ 환경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며, 다뉴브강(독일어-도나우강)의 홍수대책과 수질관리를 하는 부서이다. 현재 다뉴브강의 홍수범람을 막기 위해서 매년 자갈을 붓고 있다.

■ 다뉴브강은 독일 남부의 산지에서 발원하여 흑해로 흘러드는 국제 하천이며 독일,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를 지나며 비엔나부근에 이르러 흐름이 완만해지면서 해마다 홍수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기관은 다뉴브강의 오염을 막기 위해 비엔나시의 각 가정 생활하수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강의 미관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4) 짤츠부르크

■ 모차르트의 고향 짤츠부르크는 한마디로 모차르트를 활용한 문화상품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곳은 모차르트의 음악과 관련된 문화상품을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모차르트의 상표 가치는 무려 54억 유로로 이는 오스트리아 총 GDP의 9%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려지고 있다.

■ 최근 들어서는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을 이용한 기존의 관광산업 개념에서 탈피하여 음악과 영화,연극 등 다양한 축제(5-6월 음악축제)와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면에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를 내세움으로써 짤츠부르크하면 모차르트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심는 데 성공했다.



비엔나 도심공원

짤츠부르크 상가 간판

| 체코

■ 체코는 7만8,866㎢면적에 인구가 1천만명을 약간 넘는 작은 나라로 유럽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다. 수도인 프라하는 유럽의 미술관으로 불릴 정도로 도시전체가 문화유적으로 가득 차 있다. 체코에는 12개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있으며 200여개의 아름다운 성을 볼 수 있고 인구 보다 10배나 많은 1억명의 관광객이 한 해 동안 방문한다.

수도 프라하

■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더불어 관광수익으로 국가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0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로써 사유화가 거의 완료되었지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증·개축을 하기 전에 시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프라하시는 도시미관을 위해 네온사인의 크기 등을 엄격히 규제,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중후한 이미지를 풍기도록 하고 있으며 중심지인 프라하 1 · 2구역에는 관광버스의 출입을 아예 제한,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사전에 막고 있다. 또 도시 곳곳을 일방통행로로 지정, 교통 소통을 하고 있다.

1) 프라하시청

■ 시청 교통국은 도로의 관리, 겨울철 도로상황 관리와 해당 지역의 버스와 철도의 노선을 관리하는 곳이다. BRT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버스와 지하철에 도입하여 환승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프라하 시청 교통국은 매트로와 트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교통국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부는 체코의 관광산업을 관장하고 도시계획 및 건물보존 등을 담당한다.

프라하 담장 벽보판

프라하의 트램

■ 프라하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버스와 트램이며 버스는 지하철이나 트램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운행하고 있다. 시내는 도록 폭이 좁고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시가지 중심부에 버스 통행을 아예 차단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트램은 3~4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티켓을 구입한 뒤 차안에 설치되어 있는 개찰기를 이용, 펀칭을 하고 있는 점이 흥미로웠고 한 장의 티켓으로 버스와 트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 프라하성

■ 처음 건설될 당시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나, 13세기 중엽에 초기 고딕 양식이 첨가되고, 14세기에는 프라하 출신인 카를 4세에 의해 왕궁과 성십자가교회 등이 고딕 양식으로 새롭게 건축되면서 체코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그 뒤 블라디슬라프 2세 때 후기 고딕 양식이 가미되고, 1526년 합스부르크왕가가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시 르네상스 양식이 도입되었다. 1918년부터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면서 내부 장식과 정원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3) 유네스코 건축물

■ 오랜 역사는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건축물로 채우고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부터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아루누보 등의 다양한 건축양식이 제각기 아름다움을 뽐내며 도시 전체가 박물관 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현대적인 건물과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은백색 고대 건축물이 웅장하게 자태를 드러내며 넓은 광장으로 이어져 보는 사람을 압도하게 만든다. 프라하 성과 맞은 편으로 펼쳐진 구 시가지 역시 매우 아름다웠으며 1989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종/합/검/토/의/견

⊙ 중세 돌길 유지

- 구 시가지 도로 바닥 대부분이 중세 때 조성한 돌바닥이다. 돌을 촘촘히 깔아 만든 도로는 반복되는 마차 통행으로 패인 곳도 일부 있으나 수 백년이 지난 현재까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규격은 표면적 넓이가 손바닥(가로 20㎝ 세로10㎝정도)만하고 전체 길이를 30㎝ 이상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사각 돌기둥을 지면에 설치했다.

⊙공연비용 지원

- 프라하는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다. 곳곳에서 음악공연이 펼쳐지고 있으며 입장료가 무척이나 싸다. 이는 예술을 즐기는 프라하시의 배려 때문으로 시는 공연단이나 업체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즐기도록 했다.

⊙지정 게시판 활용

- 거리 어느 곳에도 공연포스터가 함부로 나붙지 않는다. 모든 공연 포스터는 시가 정해놓은 장소에만 규칙에 따라 붙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엄한 처벌(벌금)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시민의식이 높아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1. 문화유적의 보존

동유럽 국가들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적들에 높은 자부심과 긍지로 적극적인 문화보존 정책을 추진.

▶ 건축물 증개축을 위해서는 공사 전에 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2.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구 도심지와 신시가지를 엄격히 구분, 구 도심지 개발을 철저히 차단.

▶ 헝가리와 체코, 폴란드 등은 심각한 주택난에도 불구, 아파트 건축은 반드시 신시가지에서만 가능.

▶ 오스트리아 비엔나시는 다뉴브강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상하수도 시스템을 운영

3. 구 도심지 미관 정책

유적보호와 도심지 미관을 위해 인도블럭은 중세 때 조성한 격자형 돌블럭을 사용하고 상가 간판은 크기와 부착장소를 철저히 규제.

▶ 돌블럭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그대로 사용토록 하며 돌출형 간판이나 화려한 네온사인 등은 금지.

4. 시민편의 교통정책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승차권 한 장으로 시내버스와 트램(노면경전철), 지하철 이용 가능.

▶ 승차권 한 장으로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했으며 시간대별 연계성이 높아 효율성이 매우 높음.

5. 세 입 확 대

오스트리아 비엔나시는 부족한 시 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 증대.

▶ 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 청사 내 사무실 공간을 유료 임대화

제2반 캐나다 (토론토, 캘거리, 밴쿠버)

| 연수국가 : 캐나다 (토론토, 캘거리, 밴쿠버)
| 연수일정 : ′07. 4. 17 ~ 4. 24
| 글 쓴 이 : 양 용 모 의원, 김 상 휘 의원
| 연수인원 : 14명
최찬욱 부의장,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 김광수 · 남관우 · 장태영
여성규 · 강영수 · 송상준 · 김종철 · 양용모 · 김상휘 의원, 허 광,
송재현, 정영모

인민사회주의 국가 캐나다 연수를 가다

의회에서 연수를 간다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은 내용에 관계없이 일단 비판적이다. 그것은 잘못된 외유에 대한 전례가 많아 싸잡은 국민 정서이다. 그렇다면 안가면 될게 아닌가. 그렇다. 안가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를 떠나는 것은 보다 넓은 세상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 것이다. 시의회에 몸담고 있으면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닦아 선진 문물을 경험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라면 나는 이번 연수에서 진정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단장인 최찬욱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허광국장 그리고 여성규의원, 최주만위원장, 김광수의원, 장태영의원, 김종철의원, 강영수의원, 김상휘의원, 송상준의원, 남관우의원과 그 밖의 의회 직원들이 이번 연수에 같이 하였다.

일본나리타 공항 활주로가 젖고 있다. 부슬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다. 공항게이트앞 대기실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서 가는 눈을 뜨고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거대한 여객기를 바라보고 있다. 굉음을 내며 오르고 떨리는 몸짓으로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군상들을 토해낸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고간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검둥이에서부터 흰둥이, 터번을 쓴 인도인, 흑안(黑顔)의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세계 인종시장을 연상케 한다. 하긴, 우리 일행도 저들의 눈에는 그리 시원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결코 멋진 모습은 아니다.

덜거덕 거리며 귀가 멍멍해지더니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나는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귀를 뚫으려 애를 썼다. 얼마가 지났을까 갑자기 귀가 트이더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상으로 들리기 시작 하였다. 몽실몽실 떠 있는 구름 위를 뛰어 다녀도 좋을 듯 싶다. 틈이 없이 단단한 구름층이 반짝이는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멀리 여객기 한 대가 날렵하게 날아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부질없는 의문을 가졌다. 멀리 창공은 우주로 연결되어 푸르다 못해 하얗게 변하고 있다. 오직 구름과 해 그리고 비행기와 나만이 이 공간에 있는 것 같다.

이내 해가 지고 말았다. 비행기는 지구의 자전 반대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후 4시에 출발하였으니 금방 해와 헤어져 버린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창가를 찾아와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저것이 사자자리인가, 아님 오리온자리인가. 끊임없이 펼쳐진 어둠의 우주공간에 떠 있는 별들의 모습은 경이롭기만 하다. 나는 또다시 부질없는 생각을 하였다. 저 멀리 저 멀리 가면

어디가 나오고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서서히 우주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어둠과 빛과 우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빛과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누구나 저멀리 한없이 펼쳐진 창공을 보면 생각하는 의문일 것이다.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주는 유한하다고 한다. 그러니 빛도 유한하다. 그러나 그 학설이 진짜로 맞는지는 그들도 증명하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똑같아야 한다. 그러나 시간 또한 우주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둠을 향한 눈으로 한없는 공상의 세계로 빠져 들어 갔다. 우주 저 멀리에는 어떤 생물체가 살고 있을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 혹 살지나 않을까. 아니면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옴직한 기괴한 생물체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간을 초월하여 나의 생각은 어디론가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희끄무레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점점 밝아지더니 여명이 열린다. 어허~ 드디어 해가 구름위로 솟아오른다. 아~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나는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여 솟아오르는 피만 억제하고 있었다. 아, 장관이로다. 저 밑, 수 만길에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겠지. 또 그 밑으로 수 만길 바다 속이 있겠지. 잠시 후 나는 항로 모니터를 봤다. 비행기의 항로 모니터는 지금 북아메리카 근방의 태평양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토론토에 내리니 시간이 오후 2시다. 나리타를 17일 오후 4시 30분에 출발했는데 토론토에 와도 17일 오후 2시이다. 시간이 다 어디로 갔는가. 우리들은 시간을 거슬러 창대한 우주공간을 날아 왔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거울에 얼굴을 대고 비벼본다. 젊어졌는가. 그대로인가. 늙어가는가. 딱히 표시는 나지 않지만 아마도 하루쯤 젊어졌을 것 같다. 잃어버린 시간의 조화는 나를 즐겁게 한다.

1. 호반의 도시 토론토

비 내리는 일본 나리타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을씨년스런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사뿐히 앉았다. 17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지친 여객기는 가쁜 숨을 몰아쉰다. 덜거덕 거리는 진동이 금방이라도 커다란 장애물에 처박혀 버릴 것만

같다. 출구를 나온 우리 일행은 낯선 이국의 정취를 흘깃흘깃 훔쳐보듯이 가면서 가이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비행기에서 이미 두 끼의 식사를 때웠기에 배가 고프다. 맛있는 점심을 생각하면서 다짜고짜 토론토 시내로 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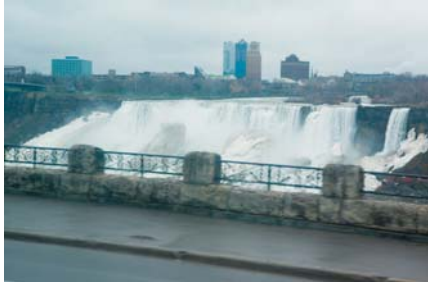
토론토는 온타리오 주에 있다. 온타리오 주는 온타리오호수를 끼고 있는 호반의 도시이다. 인구는 350만이 넘고 면적은 632㎢에 토론토란 뜻은 만나고 다시 만난다는 뜻이라고 한다. 모피 주산지이며 1815년에 유럽의 탐험가 Etienne Brale에 의하여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가이드가 말한다. 그러나 최초의 발견이라는 말은 지극히 서양인 특히,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북미나 남미나 모두 원주민이 있었다. 최초의 발견이라는 말은 최초로 침략해 들어갔다는 말이다. 원래 주인이 있는데 침략자가 들어가서 내가 발견했다고 원주민더러 나가라고 한 것이다. 정말 웃기는 일이고 웃기는 말이다. 신대륙이란 말도 사실은 의미 없는 말이다. 신대륙이 어디 있는가. 다 임자가 있는 땅들인데. 캐나다 일정을 마치 녹음기처럼 일사천리로 말하는 가이드의 말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아무튼 토론토는 1791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고 1834년에 공식적으로 영국에 합병되었으며 1873년 독립적인 캐나다 연방의 성립으로 토론토도 캐나다 연방이 되었다고 한다. 캐나다의 중심도시이며 100여개의 언어에 70여 인종이 모여 사는 도시이다. 말하자면 잡탕 도시이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인종들은 중국계와 이탈리아계 사람들이라고 한다. 우리일행은 가이드가 세계 최대라는 말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 CN타워로 이동하였다. 로켓트 모양을 하고 있으며 높이가 553.33m이다. 447m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 토론토 시내가 한 눈에 보인다. 온타리오 호수와 어울려진 토론토는 아름답기보다는 그저 광활하고 도시 계획에 의하여 잘 건설된 도시라는 느낌을 받는다.

CN타워 바로 옆에는 로렌스 센터라는 야구경기장이 있다. 때마침 경기가 있는지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다. 이 야구장은 호텔과 함께 있다. 실내 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야구장이다. 이 야구장에는 관중석 일부에 호텔이 들어서 있다. 호텔 객실에서 느긋하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야구장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 호텔에 투숙한 투숙객이 커튼을 열어놓고 섹스를 즐기고 있었다. 야구중계를 하던 카메라는 이 운우지정(雲雨之情)의 현란(眩亂)한 쇼를 15초 동안 방영하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생중계다. 물론 시청자들은 난리가 났을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이나 동조하는 사람이나 좋은 구경거리임엔 틀림없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런 사실을 안 주인공들은 방송사에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승소하여 자그마치 70만불을 보상 받았다고 한다. 후일의 입담가들은 이를 두고 야구보고 재미보고 돈 받고 일석이조라고 하였다나 뭐라나 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에 빠져들어 병아리 소풍하듯이 올망졸망 따라 다니고 있었다.

2. 울부짖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있다. 미국에 있는 이리 호(세계4번째 호수)에서 흘러들어온 물길이 나이아가라를 거쳐 캐나다 온타리오 호수(세계5번째 호수)로 흐른다. 나이아가라는 영국인들이 캐나다에 들어오기 전 이미 인디언의 보물이었다. 인디언은 바로 동이족(東夷族)이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7~8천 년 전에 축치족 조상의 땅을 지키는 인디언의 이동은 아메리칸 몽골로이드의 첫 정착지를 알래스카, 그 다음이 캐나다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알래스카를 거쳐 북미로 들어갔다는 설이 인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래서 수위 '나이아가라' 폭포도 원래 이름이 '네가람' 〈언어의 공통점 참고〉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엉덩이에 반점이 있는 몽골리언들은 백인이 신대륙이라고 하는 곳을 이미 태초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메리칸 인디언이요 남미의 원주민들이다. 크게 보면 다 우리하고 같은 종족이 아니겠는가.

우리 일행이 나이아가라에 도착한 것은 늦은 저녁 시간 이었다. 야경을 보기 위함이다. 버스가 나이아가라 옆 도로로 접어들자 불그스레한 불빛 속에 나타난 나이아가라가 위용을 뽐내고 나타났다. 장엄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멀리 어둠속에 보이는 덩치 큰 폭포일 뿐이다. 우리들은 버스에서 내리기를 원했는데 가이드는 별로 달갑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도 자꾸 내려야 한다고 하자 운전사는 멀리 도로를 한바퀴 빙 돈 후에 내려 주었다. 별로 어렵지 않는 일을 아주 어렵게 하여 버스에서 내려준 것이다.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게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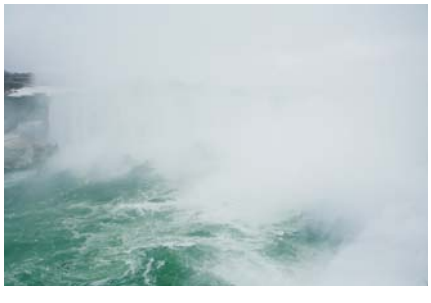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일행은 야밤에 나이아가라를 볼 수가 있었다. 굉음과 함께 물안개가 솟아올랐다. 솟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갔던 물방울이 이슬비처럼 내렸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폭포수가 내리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 물이 떨어지는 굉음 너머로 미국이 보인다. 미국의 뉴욕 주 버팔로시다. 강 건너의 휘황찬란한 네온이 빛나기에 무슨 건물이냐고 물었더니 가이드는 카지노라고 한다. 그럴 것이다. 카지노이니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저리 찬란한 불빛으로 손님을 유혹하는게 아닌가.

선잠을 잔 나는 창문을 열었다. 여명(黎明)의 아침이다. 강 건너 멀리 미국의 버팔로에는 아직도 돈을 잃은 자들의 미련인지 네온이 꺼지지 못하고 졸고 있다. 공장인 듯 하다. 건물에서 하얀 연기가 계속 솟는걸 보니 미국의 공장지대인 것 같다. 눈을 내려 보니 물안개가 솟구쳐 오른다. 어젯밤 보지 못했던 나이아가라의 위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선다. 개운한 아침이다. 흐르는 강물만이 도도하고, 떨어지는 폭포수만이 처절하게 울부짖는다. 무슨 한으로 저리 울부짖으며 떨어지는 것일까. 나는 안다. 저것은 이 아름다운 곳을 빼앗기고 마약이니 알코올이니 하는 현대 문명의 재앙을 받은 인디언들의 저주이리라. 저들의 터전을 지키지 못하고 밀려나 살육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여 그들의 문화와 혈통을 지키지 못한 한숨이요 비명이요 절규이리라. 만약 우리민족이 소수의 민족이요 저 조상 대대로 나라를 온전케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곳 인디언들과 다름이 없었을 것 이다.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번성하여 이곳 캐나다에 많은 동족이 이민을 오고 있다.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 교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하여 당당히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의 나이아가라를 감상하였다.

식사를 마친 우리들은 본격적으로 나이아가라를 둘러보기 시작하였다. 나이아가라는 미국 이리호에서 흘러 캐나다 온타리오호로 흐르는 도중에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곳에서 국가의 명운을 건 싸움을 하였다고 한다. 일천한 역사속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많다. 이 땅을 점령한 자들이 바로 땅 욕심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앵글로 색슨족들이다. 캐나다 시의회 건물에는 캐나다의 영웅 아이삭 브록(Isaac Brock)소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한다. 또한 그의 동상이 이곳 나이아가라 공원에 세워져 있다. 1812년의 제2차 영미 전쟁 때 미국이 캐나다 토론토에 진격, 방화를 하자 아이삭이 반격하여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까지 진출, 대통령 관저에 불을 질러 태워 버렸다. 당황한 미국은 급하게 흰색으로 칠을 하여 이후 백악관이 되었다고 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 강 한가운데에 배가 한척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 안내인은 이 배가 1913년 이곳에서 침몰하였다고 한다. 올드스크호 이다. 선장은 리치몬드 선장인데 구출되었다고 한다. 석궁에 줄을 달아 쏘아 그 줄을 타고 나왔다고 한다. 나는 배가 침몰하기 잘했다고 생각했다. 만약 침몰하지 않고 좌초하여 그대로 나이아가라로 내리 꽂혔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또한 침몰하였으니 지금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는 게 아닌가. 세상사 무엇이 해가되고 이로운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슬비처럼 내리는 폭포수를 맞으며 우리들은 자연 지하 동굴로 들어갔다. 자연히 만들어진 지하 동굴인지 인공으로 만든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지하 동굴 입구로 들어가니 참새소리가 요란하다. 눈을 들어 보니 건물 모서리에 흙으로 집을 지어 놓고 엉키덩키 늘어 붙어 있다.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었나 보다. 그런데 집이 우리나라에서 본 제비집같이 흙과 풀덤불을 이용하여 지었다. 우리나라 참새는 덤블로 집을 짓지 흙을 이용하여 짓지는 아니한데 이곳 참새는 집짓고 사는 것도 다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동굴로 걸어 들어 갔다. 끝이 보인다. 그러나 얼음 덩어리가 쌓여 있는 곳에 폭포수가 떨어져 물결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요란한 소리만 들린다. 다른 곳으로 가니 조금 넓다. 우렁차게 떨어지는 물줄기가 물보라가 되어 옷깃을 적신다. 환호를 지르며 도망치듯이 동굴을 나왔다.

지하 동굴을 빠져 나와 위로 올라오니 기념품을 파는 상점과 난간이 연결되어 있다. 난간으로 나가니 드디어 나이아가라의 위용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세차게 넘어오는 물줄기는 54m의 낙차를 두고 떨어진다. 떨어진 물은 다시 54m의 웅덩이로 쏟아져 소용돌이친다.

나이아가라가 장관인 것은 폭포의 높이가 높아서가 아니다. 길이 670m에 동시에 어마어마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물보라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떨어지면서 울리는 소리가 굉음이 되어 계곡을 흔든다. 이게 폭포 중 세계 세 번째로 꼽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의 수려한 금강산의 구룡폭포와 또 다른 모습인 것이다.

※ 東夷族/중국의 한족은 우리민족을 오랑케이(夷)자를 써서 유랑케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말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이다. 우리도 한족을 유랑케라고 불렀다.

※ 언어의 공통점
인디언어 : 주어 + 목적어 + 동사(만주어, 몽골어, 퉁구스어, 에스키모어, 터키어, 일본어등과 같이 한국어와 어순이 같다) 그네(한국) - 그네(인디언) 꽃신 - 코신&낫 - 낫 네 가람 - 나이아가라 여자 - 가시나 또는 딸 저네들 - 데네 신주 - 신즈 지붕 - 덮이 허깐 - 허갠 도끼 - 토막 나막신 - 막히신 여보시오 - 보시오 이쁘다 - 이쁘나 마을 - 리 아버지 - 아파치 나 - 나,노이,누이 네 개의 바다 - 네 바다

3. 온타리오 지체장애인 복지재단을 가다

캐나다는 복지국가요 사회적 약자의 천국이다는 선입견으로 도착한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시에 있는 온타리오지체장애인의 복지 재단은 기부금 이야기부터 시작 되었다. 견학을 하는데 100불의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재단측의 조건에 나는 당연히 그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좋은 시설과 제도를 견학하는데 그 정도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입구의 재단 안내표지석 앞에서 쑥스럽게 모여 사진을 찍으면서 나는 이런 것을 보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사진 찍기를 좋아 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굳이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되는 곳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는 목적은 단하나, 여기에 갔다 왔소이다라는 증거를 들이대기 위해서다.그러나 사실 이런 사진은 의미가 없다. 이런 사진은 보여줄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온타리오 복지재단

온타리오 복지재단의 간부와 함께

어쨌든 우리 일행은 온타리오 재단의 지체장애인 시설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 안내 석에 앉아 있는 거대한 체구의 여자 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보내며 반갑게 맞이한다. 잘 정돈된 홍보실에 파워포인트를 돌려가며 설명을 시작하는 미스터 카리암씨의 진지한 표정에서 우리는 진솔한 캐나다의 모습을 본다.

온타리오 시설은 73개의 프로그램에 1,650명의 스탭진을 갖추고 연간 4,200명의 수용인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예산은 8,500만 불의 캐나다 달러이며 정부에서 60% 주정부에서 30% 기부금 10%로 충당한다. 운영은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달라지며 프로그램 심사부서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며 평가위원회를 두어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위원회는 독립된 그룹으로 전문가를 고용한 중간기구로서 토론토시에서 운영한다고 한다. 평가위원회의는 정부와 재단의 보고서를 보고 평가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립지원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재활교육, 동료지원서비스, 여가활동 및 협동프로그램, 장애인 가정종합지원 서비스 등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때 멸시등 불이익에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온타리오 지체장애인 복지재단에서 기념촬영

온타리오 지체장애인 복지재단 브리핑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면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대일의 카운슬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장애인에게 독립된 생활을 제공 하면서 도움이 끝난 사람에게도 적절한 기술제공을 하여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심지어는 장애인이 직장에 출근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길안내도 제도적으로 도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감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도 나의 관심을 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복지국가 캐나다의 고민은 나의 관심을 끈다. 캐나다 공공노조에서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국내총생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에는 21.6%였다가 2001년에는 17.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가 21.8%에서 20.8%로 줄어든 것과 견주면 캐나다의 감소폭이 네 배 가까이 더 크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의 분석을 보면,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비율도 89년 75%에서 2002년에는 38%로 뚝 떨어졌다. 보건의료예산 등 각종 공공서비스 지출에서 미국과의 격차도 계속 좁혀지고 있다. 복지의 후퇴를 잘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는 새로 도입하려는 사회보장 정책이 자유무역협정의 자유로운 시장접근과 경쟁 논리에 밀려나는 경우도 많다. 93년 온타리오주가 공공 자동차보험을 도입하려다가 미국 보험회사들의 문제제기로 포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캐나다 공공노조 셀리고든 연구원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제도나 기관들이 이제는 시장논리에 물들어 효율성만 찾고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민간 용역업체로 옮겨갔다.

성장은 둔화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마저 줄어들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예전 같은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아무 준비 없이 가는 여행은 보고 듣고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온타리오 복지시설을 둘러보면서 나는 소홀하게 그냥 이곳에 온 것을 몹시 후회하였다. 사전 지식이 없이 질문을 하면 개괄적인 것 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료를 잘 챙겨 왔다. 국내 들어가서 번역을 잘 하면 좀 더 많은 부분의 공부가 될 것이다.

4. 겔거리 하수종말처리장

많은 설왕설래 끝에 우리일행은 겔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향했다. 인구 100만의 하수처리장은 겔거리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보우강가에 있었다. 어렵게 협의하여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는지 진눈깨비조차 주적주적 내린다. 사실 관심도 없는 분야를 동료의원의 요청으로 방문한다는 것도 곤욕일 것이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은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더 보려고 질문도 많이 하고 세심한 관찰을 하였다.

캐나다는 국가건설의 최종 결정부서가 환경부라고 한다. 그 어떤 국토개발도 부서 간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승인이 나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노우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만큼 캐나다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낯선 선진국이라 내 눈에만 그렇게 비추는지 자연환경과 잘 조화를 이룬 도시의 주택가와 공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겔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견학에 앞서 기념촬영

겔거리 하수종말처리장

겔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들어서자 서너명의 안내원이 우리들을 맞았다. 어색한 영어로 인사를 하고 들어선곳은 실내 홍보관이었다. 들어가 죽 둘러 앉았다. 방문 기념으로 볼펜과 티셔츠, 뱃지를 자리 앞에 자료와 함께 가지런히 정리하여 놓았다. 설명에 나선 50대 중년의 직원은 베트남 출신이라고 한다. 자신은 아반떼 현대자동차를 타고 있으며 매우 성능이 좋아 굿이라고 했다.

나는 괜스레 기분이 좋았다.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 최과장의 통역으로 파워포인트를 돌리며 설명이 시작되었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최과장은 자신이 관광학과 출신이라 전문적인 기계공학이나 환경공학쪽의 전문용어를 몰라서 애를 먹었다고 고백을 한다. 그의 영어실력을 탓할 수는 없다. 내가 영어를 잘 했다면 이렇게 애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답답함에 좀 더 세밀한 문제는 자료를 모아서 국내 가서 번역하여 알기로 하고 상세히 아는 것은 포기 하였다.

겔거리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실에서

눈내리는 겔거리 하수종말처리장

겔거리시는 알바타주에 있다. 알바타주는 로키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보우강이 흐른다. 알바타주의 환경보존은 보우강의 환경보존에 있다고 설명자는 서두를 꺼냈다. 인구 100만에 50만 톤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한곳은 지금 최신시설로 건설중이라고 한다.

이곳은 하루 15만 톤 정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장이며 직원은 3개소에 1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잘 제작된 홍보물을 감상하고 현장 견학에 나섰다. 안전모를 모두 쓰고 안내하는 직원을 따라 나섰다.

최초 슬러지 처리시설부터 포기조, 2차 정화조 등 시설을 둘러보고 지하로 들어갔다. 가스처리 시설과 악취처리 시설이 배관과 배관으로 연결되어 집약되고 다시 처리되는 시스템이 어느 부분 하나 녹슬고 정리 안 된 곳 없이 잘 관리 되고 있었다. 중앙통제실로 들어가자 하수처리장 전체를 통제하고 체크 할 수있는 전산시스템이 모니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통제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으랴 설명하는 말을 받아 쓰랴 정신이 없었다.

우리들은 마지막 정화된 물이 보우 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곳으로 갔다. 많은 물이 물 통로를 통하여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하루 15만 톤의 처리시설이면 엄청난 물이 흘러들어 가는 것이다. 환경 규제치를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직원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흐른다.

나는 하수처리장을 견학 하면서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 하였다. 첫째, 넓은 부지위에 건설된 처리장은 기계시설만 지하로 들어가 있고 전부 지상으로 설계되어 건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1958년에 건설이 시작된 하수처리장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악취도 전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것 보다 훨씬 심한 악취가 나는 것 이었다. 왜 악취가 나느냐고 통역보고 물어봐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삼가야 한다고 한다. 별게 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내연기관을 돌려 발전을 하고 있다. 발전된 전기의 양은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전기의 절반을 충당한다고 한다. 조그만 에너지도 허비 하지 않고 아끼고 이용하려는 이곳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시설이다.

네 번째, 여기서 나온 슬러지는 모두 퇴비로 농지에 공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같이 슬러지를 소각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순수 오폐수이니 가능한 것이다.

나는 자료를 챙겨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수종말처리장을 나왔다. 좀 더 많은 것을 보려면 미리 연락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와야 한다는 동료의원의 말이 실감이 난다. 앞으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일이다. 그러나 이번 해외연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수처리장을 보아서 나는 듯이 기뻤다.

5. 캐나다는 인민 사회주의 국가이다

캐나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미국과 가깝고 비슷한 나라. 서양식으로 자유분방한 나라. 아니면 미국의 영향력으로 잘사는 선진국. 나는 캐나다에 가기 이전에는 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

우선 캐나다는 인민사회주의 국가이고 영연방국가이며 70여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多民族) 국가이고 다문화(多文化) 국가이며 언어도 국가언어가 영어 불어이지 60여개의 언어를 사용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풍부한 석유생산으로 국민 평균 소득이 2만5천불로 세계19위 (한국1만8천불/세계28위) 정도(Canada 821,000,000,000$ (캐나다) / Korea Republic 722,000,000,000$ (한국).2004년 2004 World GDP US)이며 주마다 국민소득이 다른 나라로서 알바타주는 8만 불을 넘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 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인 독재자가 나타나 권력을 독점하여 국민을 핍박하는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가 잘 되어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 연방국가인 것이다.

서구식 자본의 투자가 활성화 되지만 분배가 제도적으로 잘 이뤄져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이 잘 되어있는 나라라고나 할까. 그러나 캐나다도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유민이 많은 퀘벡주의 독립 문제라든지 최근 치솟는 실업률이라든지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 문제라든지 인구 3,300백만의 캐나디언들의 모습은 분주하기만 하다.

캐나다에서는 GST(연방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즉 소비세를 7% 부과 한다. 주마다 다르게 주세를 부과 하는데 연방세와 별도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는 8%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고,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7%, 앨버타 주는 주세가 없다. 캐나다는 노인의 천국이며 동물들의 천국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 장애인의 왕국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아주 잘되어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으며 무상교육(공립학교)을 실현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 국민들에 한해서이다. 그러나 캐나다 복지 제도도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 캐나다 국민들은 복지예산의 삭감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실책 중에 하나가 미국과 FTA를 맺은 것이었다고 한다. 미국과 FTA 채결로 인하여 캐나다의 60%에 가까운 기업이 미국자본의 잠식으로 넘어가 버렸다. 한국도 미국과 FTA를 맺는 것은 망하는 짓이다 라고 가이드는 힘주어 말한다.

지금 캐나다 경제는 미국자본의 침투로 인해 급속하게 미국화 되어가고 있고 미국과의 마찰로 인하여 심한 좌절감에 사로 잡혀 있다. 미국이 제소하면 무조건 이겨도 캐나다가 제소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국제 질서라고 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이민 간 가이드가 느끼는 캐나다와 미국 간 FTA 결과에 대한 생각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 앞날을 말해 준다. 미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캐나다가 8년을 준비하여 채결한 FTA에 캐나다가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마치 이 길만이 살길인 것처럼 한미 FTA를 밀어 붙이는 노무현 정부의 객기에 할 말을 잃는다. 온 국민이 나서서 국회비준을 막아내야 하겠다.

캐나다에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고도제한 법이 있다. 다운타운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3층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초과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 병원, 실버타운만이 초과 할 수 있다. 하지만 벤푸의 한 호텔은 앞에서 보면 3층이고 뒤에서 보면 7층이다. 바로 일본인이 지은 것이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지었다고 한다. 그 건물이 지어진 이후 당국은 앞, 뒤 옆의 모습을 담은 설계도를 요구하게 법을 고쳤다고 한다. 일본인다운 발상이다. 캐나다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으며 알바타주에는 자동차에 앞 번호판을 달지 않는다. 주법으로 뒤 번호판만 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앞 번호판에 자기 이름이나 애인 이름을 붙이고 다닌다고 한다.

겔거리 자랑을 하는 가이드 최과장의 모습이 희망에 차있고 자신에 차 있다. 그리 유명하지 않은 한국의 대학 관광학과를 나와 이곳에 어학연수를 왔다고 한다. 1년 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의 성실성을 알아본 사장이 임금 세배를 제시하면서 1년 더 계약을 하자고 하여 내리 3년을 일했다고 한다. 지금은 자신의 저택도 가지고 있고 식당도 경영하면서 가이드를 한다고 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캐나다 자랑 특히, 알바타주 자랑을 늘어놓는다. 퍽 용기 있는 한국의 젊은이다. 만나서 반가웠다. 가이드 최 과장이 말한 자랑 중에 한국인 윤지영박사 이야기가 있다. 이곳 겔거리 후티어 병원 탐 베이커 연구소 소장이 바로 한국인 윤지영 박사라고 했다. 그의 자랑을 듣노라면 그도 틀림없이 한국인임을 알 수 있다. 그래! 한국인이여 위대하고 영원 해다오. 나는 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다.

겔거리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조용히 흐르는 물이란 뜻이란다. 그렇다. 겔거리는 확실하게 조용히 흐르는 물같이 조용한 도시 였다. 밤에는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같이 밤새워 미치는 일이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캐나다가 여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나라일는지도 모른다.

6. 로키를 넘으며

벤프의 아침은 경이롭다. 창문을 열었다. 이국의 정취는 나를 당황케 한다. 그림엽서에서나 나올 법한 서양의 귀틀집과 어울리는 전나무 숲과의 조화는 한 폭의 그림 이었다. 마침 소복이 내린 눈 속에 파묻혀 집과 눈과 나무와 산이 기가 막히게 어울려 버린 것이다. 사진기를 들어 몇 장 찍었다. 호텔이 고즈넉한 산장의 멋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로키산 눈 속의 산장에서 백색의 세상으로 빠져 들어 간 것이다.

로키산맥의 고느넉한 겨울(벤푸공원)

벤푸국립공원은 로키산맥의 일부이다. 관광지로 개발되어 도로가 산 중턱까지 잘 나 있다. 빼곡히 들어서 있는 산림은 자작나무, 전나무 들이다.

나무만 팔아도 150년을 먹고 살수 있다는 나라가 캐나다 이다. 쭉쭉 뻗은 아름드리 침엽수림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로키산맥의 한 지산(枝山)을 우리가 탄 버스는 달리고 있다. 그랜드티턴의 산정에 있는 레이크 루이즈(lake lousie)호수로 가기 위해서다.

이 호수는 영국의 초대 총독이 부인인 영국의 루이즈 공주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미국의 미주리강은 루이스 호수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스네익강으로 이어져 있다. 아쉽지만 나는 루이즈 호수로 가지 못했다. 심한 감기 몸살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버스 안에서 스키장과 잘 어울리는 집의 경치를 감상하고 사진 몇 장 찍는 것으로 대신 하였다. 내가 본 로키산은 수려한 산은 아니다. 깎아지른 듯이 가파른 산도 아니다. 그저 우리나라 지리산 같이 평범하지만 속이 깊고 지혜로운 산 같았다.

점심을 먹기 위하여 루이즈호수 가에 있는 휴게소 같은 곳의 식당으로 들어갔다. 우리식의 음식 이름으로 안심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다. 가이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캐나다의 스트레스 받지 않은 소 안심으로 만든 스테이크에 나는 입맛을 다셨다. 그러나 막상 칼로 썰어 입에 넣어 보니 맛이 영 형편이 없다. 연하지도 않고 우리의 소고기 같이 구수한 맛도 없다. 절반도 못 먹고 밀어내 버렸다. 캐나다의 소고기 맛이 이 정도라면 우리의 소고기 경쟁력도 그리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일행은 다시 가던 길을 돌아 설퍼산으로 향했다. 곤돌라를 타기 위해서다. 해발 2,281m에 설치되어 있는 곤돌라는 우리들을 싣고 건드렁 거리며 정상으로 향했다. 발밑에는 울창한 침엽수림이 우거져 있다. 아직 녹지 않는 눈밭위에는 동물들의 발자국이 즐비하다. 어떤 동물들이 다니는 것일까.

로키산맥에는 붉은 곰이 많이 산다고 한다. 나는 로키의 붉은 곰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봐왔다. 연어의 껍질과 창자를 뜯어 먹는 장면에 익숙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가이드 말로는 곰이 민가로 출연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사람을 해치는 곰은 두 번의 기회를 주어서도 계속 민가로 내려오면 사살 한다고 한다. 그러나 먹이가 부족할 때면 먹이 구하기가 손쉬운 민가에 곰이 많이 출연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하니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공존은 어디가나 문제인 것 같다. 곤돌라가 정상으로 오르니 귀가 멍멍 하다. 사방을 보니 산은 구름 속에 숨어 보이지 않는다.

겔거리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로키산맥의 북쪽을 넘어 밴쿠버로 향하고 있다. 파란 창공을 가른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고 차 한 잔 마실 동안의 시간이 흐르자 구름이 걷히기 시작 하였다.

마침 창가에 앉은 나는 아래를 보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야말로 조각같이 빚어놓은 로키산의 설경이 나타난 것이다. 준령 협곡이 끝없이 펼쳐진다. 두둥실 떠있는 한가로운 구름은 바쁜 봄기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겨울 설산의 경치에 취해 있다.

흘러 강이 되어 호수로 흐르니 검은 전나무 숲이 창을 세운 병사들처럼 묵묵히 호수를 지키고 있다. 아마 백만 대군이 출동을 했나 보다. 마치 사열하는 장군처럼 나는 비행기에서 셔터를 눌러 찬란한 군무를 축하 하였다.

캐나다의 중심축은 로키산맥이다. 로키산맥(Rocky Mountains)은 북아메리카의 서부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다. 알래스카에서 시작하여 뉴멕시코 주에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산맥이다. 이 로키산맥 중 캐나디안 로키산맥(Canadian Rockies)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북부에서 시작해 남동쪽으로 뻗은 대상산맥으로 로키산맥의 일부이다. 총연장 1,600㎞, 너비 40~80㎞의 이 산맥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남쪽으로 뻗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앨버타 주 경계 280㎞의 절반을 형성하고 있다. 협곡으로 이어지는 서쪽에는 지질학적으로 침하지로 이루어져 있다.

산맥은 수려하고 만년설이 밀가루로 조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아름답다. 서쪽에는 로키 산맥 협곡(지질학적 침하지)이 있어 캐나디안 로키 산맥의 앞쪽 능선과 컬럼비아 산맥의 경계가 된다. 컬럼비아 산맥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셀커크산맥이 속해 있는데 때로 캐나디안의 로키산맥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한다. 해발 3,350m가 넘는 준봉이 50개가량 늘어져 있다. 주봉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로브슨 산이 3,954m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로키산맥의 일부를 보았다.

7. 밴쿠버의 공원들

로키를 넘은 우리일행은 3시간의 시차에 의하여 또 시계를 돌려야만 했다. 입에 오토바이를 달고 나타난 가이드 로양관광 신부장은 가이드를 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처럼 안내말을 쏟아 내었다. 조금은 소름 끼치는 입담에 우리들은 처음 어리둥절하다가 이네 적응하여 잘 알아들 수 있었다.

퀸엘리자베스 공원의 사진찍는 사람들 동상앞에서

퀸엘리자베스 공원으로 향하는 차창의 밴쿠버 시내는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언젠가 와 본 듯한 시내 모습에 나는 고개를 갸우뚱 했다. 벌써 캐나다에 적응되어 버렸는가. 퀸 엘리자베스 공원은 원래 채석장 터 였는데 자연의 조건과 인공을 가미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 공원에는 세 가지의 볼거리가 있다고 한다. 그중 포터섹션의 청동 동상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여자 둘 남자 하나, 세 사람을 한 남자가 사진을 찍어 주는데 이들은 두 쌍의 부부이다.

자꾸 사진 찍어주는 남자의 부인에게 친구가 다가가자 사진 찍는 이는 자기 부인에게서 떨어지라고 손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을 찍히는 남자의 손은 어디로 가 있는가. 남의 부인의 엉덩이에서 똥침을 놓고 있다. 서양에서는 똥침을 놓는 것은 하룻밤 보내자는 말이라고 한다. 음흉한 남자다. 왜 이런 해학적인 동상을 만들어 놓았을까. 곰곰히 생가해보니 참으로 재미있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은 이들 앞에서 유쾌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들도 음흉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크게 웃었다.

밴쿠버 퀸엘리자베스 공원의 아름다운 정원

1867년 잭데이튼이 이민을 와서 마을을 만들고 발전시켰다는 게스타운으로 우리들은 향했다. 초기의 상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있다. 게스타운에는 명물이 하나 있다. 15분마다 증기를 뿜으며 캐나다 국가를 연주하는 증기 시계탑이다. 관광객들은 시계탑 앞에서 사진 찍기에 바쁘기만 하다. 무엇인가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아이디어가 좋다.

상점으로 들어가니 중국제 기념품들이 줄줄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어디가나 중국제 공산품 천지이다. 저질의 품질인줄 알고 있지만 마땅히 살만한 것이 없으니 그저 몇 개 사서 들고 나온다. 의외로 값이 비싼 것이 많다.

스탠리공원의 이름은 BC주(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약자)의 초대 총독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원이다. 세상에서 못된 짓을 많이한 민족을 따지면 앵글로 색슨족도 둘째가라면 서운해 할 것이다. 영국인들은 이곳 인디언들을 죽이기 위하여 천연두를 퍼트렸다고 한다. 캐나다에는 원주민이 캐나다 인구의 약 3% 9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묶어 주고 마약과 알코올에 젖게 만들어 무능력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인디언으로 알려져 있는 휘른족의 후손이 바로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케빈코스트너 감독의 늑대와 함께 춤을(1991) 이라는 영화에서 포니족들은 도끼를 날려 등을 찍어 사람을 죽인다)

카필랜드 서스펜션 브릿지(capiland suspesion bridge)는 아슬아슬한 계곡의 높이 150m 이상의 전나무로 가득차 있다. 아슬아슬하게 놓아져 있는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를 놓은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만한 경치를 가지고 있는 이곳의 산악관광자원도 경이롭다. 다리를 건너면서 흔드는 장난은 우리들만의 낭만이다. 물론 다리를 건너면서 흔들지 말라는 경고의 문구는 없다.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는 여인들의 괴성이 계곡의 골짜기를 울린다.

밴쿠버섬의 한국전쟁 참전비에서 묵념

〈밴쿠버[Vancouver] 시는 조지아 해협 어귀 즉 버라드만과 프레이저 강 삼각주에 있다. 맞은편에는 밴쿠버 섬이 있다. 밴쿠버는 미국 워싱턴시 북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태평양에 접해 있다. 수심이 깊은 천연의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1986년 시가 되었다. 캐나다 최초 횡단철도인 캐나다 퍼시픽 철도의 종착지이기도 하다.

1792년에 이곳 해안을 항해한 조지 밴쿠버 함장의 이름을 따서 밴쿠버로 이름을 바꾸었다.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연안항이자 세 번째 도시이다.

대도시권 내의 교육 · 문화 기관으로는 인류학 박물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1908),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1963), H. R. 맥밀런 천문관, 100주년기념 해양박물관, 밴쿠버 미술관(1931), 스포츠 행사를 위한 BC 경기장(1983) 등이 있다. 수목원 · 정원 · 수족관 · 동물원 등이 있는 스탠리 공원이 시내 항구 입구에 있다. 이 공원의 면적은 405 ha이다. 참고 여행자료집〉

8. 부챠드 가든의 멋

일행은 밴쿠버 섬으로 가기 위하여 배에 올랐다. 3만 톤급의 어마 어마한 여객선이다.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타이타닉과 같은 급의 여객선이라고 한다. 실내로 들어가니 크기가 어마 어마 하다. 배가 움직이는 모습이 웅장하고 듬직하다. 뱃전으로 올라갔다. 파란 하늘에 배를 따라 유영하는 갈매기 모습이 평화롭기만 하다.

배에서 내려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 성실한 가이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였건만 나는 벤쿠버섬의 이국적인 경치에 취해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이곳이 정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나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화려한 곳도 있는가.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하여 우리들에게 손짓한다.

로버트 핌 부챠드씨는 1856년에 태어나 1943년에 사망하였다. 그의 부인 제니 부챠드는 정원 가꾸는 일에 전혀 아는바가 없었음에도 한 친구로부터 스위트피 몇개와 장미 한 송이를 기쁜 마음으로 선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녀의 새집 근처에 심어서 그것이 나중 세계 최고의 걸작 원예작품 중 하나의 시발이 된 계기가 되었다. 시멘트 생산업자이던 그는 시멘트 공장에 필요한 석회석과 점토를 파던 이곳 부지에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챠드 가든 이라는 정원을 세웠다.

척박한 땅에 복토를 하기 위하여 마차를 이용, 수십 톤을 옮겨 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와 꽃을 심었다. 채석장 바닥에 유별나게 깊은 부분은 주의 깊게 계획한 후 물을 채워 폭포수와 개울물을 흘러들게 하여 엷게 빛나는 호수를 만들었다고 한다. 정원예술의 극치를 보여준 이 정원을 조성한 이야기는 빠르게 세상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이들을 환영하는 부챠드씨 부부의 겸손과 정성은 남달랐다고 한다. 낯선 방문객들도 개의치 않고 저녁식사에 초대할 정도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들 부부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었다. 부챠드 가든은 세계2차 대전이 일어난 후 심각한 인력난에 정원은 돌보지 못하여 황폐화 되었고 쇠약해진 부챠드씨와 부인은 빅토리아로 이사하여 1943년과 1950년에 각각 운명하였다.

황폐해버린 정원을 다시 옛날로 돌리는 일은 부챠드씨의 손자인 이안 로스와 그의 부인 앤리에게 돌아갔다. 정원을 가꾸는 일에 뛰어난 열성과 상상력을 가진 이안 로스의 노력으로 부챠드 가든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이안 로스씨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1997년에 작고하였다고 한다.

부챠드 가든은 자연의 조화라기보다는 자연을 이용하여 사람이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얼마나 잘 만들고 가꿀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정원인 것 같다. 매년 15만 5천 그루 이상의 구근을 화란으로부터 수입하여 화려한 봄단장에 쓴다는 이 공원의 봄경치야 말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색상을 모아 채색해 놓은 것 같다. 내가 부챠드 가든을 방문한 때가 바로 이곳 계절로 초봄이다. 활짝 피지 않고 일부는 피고 일부는 맺어 있는 모습이야 말로 꽃의 아름다움에 절정이 아닌가. 감탄사를 연발할 시간도 없다. 그저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찍어 기록에 남기고 싶은 마음뿐이다.

튤립계절의 스타연못이라는 곳에 도착 하였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안 일이지만 이곳의 세 마리 철갑상어 상은 이태리에서 주조되어 이곳에서 제일 큰 잔디정원 끝에 단을 높여 만든 분수대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물과 철갑상어와 분수 그리고 튤립이 어우러진 분수대의 정취야 말로 이곳의 백미이다.

가든 아래로 내려가니 로스 분수가 물을 뿜는다. 이 조그만 호수에 청둥오리 부부가 짝짓기 사랑을 나누고 있다. 자맥질을 하는 모습이 먹이감을 낚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한 마리가 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고 같이 나왔다가 암컷의 등 뒤로 올라갔다 내려 왔다는 반복하고 있다. 저들의 사랑도 내가 보기는 신비롭고 화려하기만 하다.

나오는 말미에 일본정원으로 갔다. 입구의 솟대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일본풍으로 되어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이다. 일본 정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일본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으리라. 입구의 멧돼지 청동상을 쓰다듬는다. 소망을 빌면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무엇을 빌 것인가. 나는 전주35사단 부지에 건설될 공원을 생각하였다.

자연을 크게 훼손한 보잘 것 없는 채석장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든 이분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아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만든 이유는, 첫째는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소신과 자신들이 망가뜨린 자연을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과 둘째는 사업적 목적이었을 것이다.

사업으로서 조성은 하였으나 단편적인 이득에 연연하지 않았다. 적어도 자신들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하려는 생각도 갖지 않았다. 후손 대대로 물려줄 생각으로 정원을 조성한 것이다. 그런 모습은 정원 전체의 구도와 심어놓은 나무들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9. 삼족오와 천둥새

고구려 벽화에는 삼족오가 등장한다. 삼족오는 태양신을 섬기는 고구려의 상징이요 자연의 숭배에서 나오는 토템신의 하나이다. 삼족오의 세발은 삼신을 의미한다. 삼신은 환웅 환인 단군신을 말한다. 고구려의 19대 태왕 국강상 광개토호태왕 비에는 천제의 아들이란 문구로부터 비문이 시작

된다. 이 천제가 바로 삼신중에 하나인 단군신이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단군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조선이 만백성을 거느린 때가 5000년 전으로 추정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1만년 전후로 추정되는 구석기에서 신석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베링해를 넘은 한국인의 조상 즉, 동북아에서 번성했던 몽골리언들은 북아메리카에 도착하여 태양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번성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아메리카의 토템폴에는 맨 위쪽에 천둥새가 새겨져 있다. 토템폴은 우리의 장승과 같이 마을의 안녕과 민족의 번성을 기원하여 만든 상징물이다. 토템폴에는 자연의 동물을 새겨 넣고 있다.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신성시 하며 지위가 높다. 맨 위의 상징물은 높은 신의 존재에 이른다. 캐나다 토템폴의 맨 위쪽에는 천둥새가 새겨져 있으며 바로 인디언의 신의 상징인 것이다. 토템이란 "귀하게 여겨지고 인체에 들어오는 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토템 숭배의식은 몽골리언들의 가장 오래된 의식이다.

밴쿠버 스탠리 공원의 토템폴을 보고 있다. 맨 위에 천둥새가 조각되어 있다. 우리의 마을 어귀 장승을 연상하면서 고구려의 삼족오를 생각해 냈다. 저게 왜 여기 와서 서 있는가. 우리민족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바로 한국인이 베링해협을 건너와 인디언의 조상이 되었다고 설명 한다.

밴쿠버 스텐리공원의 토템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귀국 후 나는 문헌을 찾아보았다. 여기저기 기웃 거린 결과 몇 개의 자료를 찾았다. 누가 집약 한 것인지는 필명으로 써놓아 잘 모르겠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원류(源流)인 북방몽골계가 수만년 전 시베리아~베링해협(과거에는 육지)~알래스카~북미~중·남미로 이동하면서 지금 에스키모, 인디언, 인디오들의 조상이 됐다는 연구 자료들을 접하였다. 결국 우리 모두는 수만년 전, 지금 바이칼호 부근 어느 곳에서 함께 살았던 조상들의 '한뿌리' 자손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수많은 세월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한국인들이 한반도에 정착해 비교적 단일혈통과 습속을 유지할 수 있었듯이 미대륙 혹 한지대나 고산지대에서 동화를 거부하고 전통적 삶을 고수한 원주민들도 있었던 것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유래와 그들의 신세계 이주에 관하여, 언어 인류학자인 그린버그 교수와 인종학자인 제구라 교수 및 인류학자인 터너 교수는 서로 연구결과를 놓고 종합 토론을 전개한 결과, 인디언의 언어가 종래 생각했던 것처럼 2백 혹은 3백 개가 아니고 단지 세 개의 언어군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린버그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장 넓게 사용한 언어가 알고퀸이고, 그 다음이 아타바스칸과 나-데네이며, 세 번째가 에스키모-알룻이라고 말했다.

제구라 교수는 인디언의 혈액형을 A, O, B, Rh형으로 나누어서 분류하여 발표하였는데, 그도 역시 인디언을 크게 나누면 세 부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린버그가 나눈 세 부족에 자기의 혈액형 연구결과도 맞추어서 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는 또한 언어의 분포에 있어서도 역시 위의 세 지역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구라 교수는 그린버그 교수와 의견이 일치함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 터너 교수는 치아 형태를 분석하여 인디언의 유래를 추적하였는데 그들의 어금니 수를 먼저 검토하였다. 예를 들면 유럽인들은 어금니의 뿌리가 두 대이고 어금니의 뿌리가 세 개이면 아시아인 아니면 인디언들의 이이다. 그래서 치아의 형태는 인종의 유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터너 교수는 직접 시베리아와 중국에 다녀왔는데, 그는 거기에서 8,000년 내지 2,000년이 되는 인간의 이빨들을 조사하였다. 이 이빨들은 시베리아와 만주 일대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이러한 터너 교수의 치아 형태에 의한 분류는 제구라의 혈액형에 의한 분류와 일치하였고, 그린버그의 언어에 대한 분류와도 일치하였다.

이 같은 북방몽골계 연구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몽골인들이 워낙 강인하고 생명력이 질겨 칭기즈칸 시대, 중국의 청나라 시대 등 인류사에 굵직한 족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그 몽골계 중에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이들이 바로 한국인이다.

서양인들의 시각이 아니라 바로 한국인의 주체적 시각으로 몽골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그만큼 우리가 누구냐는 데 대한 정체성 · 주체성 연구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캐나다 여행이 남긴 인디언 발자국의 상상

김상휘 의원(효자3.4동)

지난 초여름 캐나다 여행은 인디언의 뿌리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을 한층 높아지게 했다. 왜냐하면 필자 스스로가 황색 인종이고 언제부터 황색인종의 근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캘거리, 벤큐버(퀸엘리자베스공원,차이나타운,스탠리공원) 큐벡주(밀랍인형박물관),토론토(CN타워, 토론토 대학, 주의사당), 빅토리아(부차드 꽃공원), 나이아가라, 록키산맥등의 자연경관의 미학보다, 같은 종(種)으로 착각되어지는 인디언들의 소멸을 보면서, 가슴이 시렸고, 지금도 인류학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인디언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나와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문명에 밀린 인디언들은 보호정책에 가둬지게 되었고, 그로인해 그들은 슬럼가 어두운곳에서 마약을 심취하거나 관광객이 몰려 있는 거리에서 인디언의 소멸을 대나무로 만든 펜플릇에 애잔한 음색을 싣고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디서 왔을까? 인류(人類)는 언제부터 이 지구 위에서 살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 해 볼만한 문제인 것 같다.

종래 학설에 의하면「인류는 약 2백만년 전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진화되어 1백만년 전에는 유럽과 아시아로 퍼졌으며 1만 2천년 전에 이들이 베링해협을 거쳐 북미대륙으로 건너갔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종래의 주장에 대하여 근래 러시아 고고(考古)학자 유리 모차노프는 새로운 학설을 내세워「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돌로 된 도구들이 영국의 고고학자 메어리리키가 케냐에서 발견한 2백만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가 사용하던 것과 매우 흡사(恰似)하며 또 그 도구들이 발견된 토양이 지리학적으로 1백 80만년 전에 생성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도구들을 사용하던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같은 시기에 생겨났거나 또는 어쩌면 아시아에서 최초의 인류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물음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일 먼저 아메리카 땅에 건너 온 종족은 인디언인데 이들이 아시아로부터 베링 해협을 건너서 왔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인디언들이 어디에서 언제쯤 건너 왔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처음의 미국인"이라는 책을 저술한 G. H. S. 부쉬넬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신세계로 인간이 이주하는 데는 지리와 기후 등의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들이 신대륙에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베링 해협이었다. 배가 발명되기 전 인디언들은 마른 땅을 건너지 않을 수 없었다.

대략 B.C. 25,000년에서 9,000년 사이에는 동북아시아와 알래스카가 넓은 평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위스콘신" 이라고 불려지는 제4 빙하기에는 지금보다 해면이 훨씬 낮았고 물은 얼음에 잠겨 있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와 미국의 북부 지방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고 넓은 평원으로서 아시아 대륙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때가 대략 B.C. 25,000년경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쉽게 알래스카를 정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다가 B.C. 18,000년경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 버렸는데 그것이 약 8,000년 동안 계속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다가 B.C. 8,000~5,000년 그 이후부터는 기후가 따뜻해져서 빙하기가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인디언의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네 어구에서 있는 우리의 장승같은 것을 보게 된다.

인디언의 이런 장승들은 그들의 토템 숭배에서 연유한 것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곰, 까마귀, 여우, 독수리, 비버, 산양, 상어, 고래 같은 것이다.
그들은 동이족(東夷族)에서 까마귀를 대단한 영물로 취급하는데 태초(太初)에 까마귀가 인간과 만물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다. 세계가 혼돈 속에 있을 당시 이 까마귀가 혼동에서 우주를 창조한 것으로 신앙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웨일즈 섬에는 여러개의 장승이 서 있는데 그 중에는 곰 장승 머리에 고래를 이고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의 어깨 위에다 까마귀를 얹고 있는 것도 있다. 인디언 토템 가운데서도 가장 흔한 것이 곰이다. 트링기트 인디언들은 곰을 가장 숭배하며 절대로 곰을 잡아먹지 않는다. 그 까닭인즉 곰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다(Haida) 인디언들은 지금도 그들이 곰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후손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또 알래스카 연해의 인디언들은 회색 곰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신봉하고 있으며 곰 어머니에 관한 재미있는 신화(神話)에서 까지 구전되어 지고 있다. 이런 곰 숭배사상은 우리의 단군신화 웅녀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디언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샤머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인디언들은 인간이 정령들과 직접 교접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교접은 자식들에게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간다고 믿었다.

즉, 어떤 부모가 병을 고치는 샤먼을 행했다면 그 샤먼이 그 부모의 자식들에게 까지 대대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인디언 족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놀이 가운데는 "실뜨기, 고누, 윷놀이"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형태나 방법에 있어서 우리들의 놀이 문화와 흡사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맥팔랜 같은 학자들은 이런 놀이가 중국에서 건너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모든 서양 학자들이 한국의 것을 중국의 것이라고 혼돈하고 있듯이 그들 또한 이것을 혼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윷놀이, 실뜨기, 고누 같은 놀이는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 가도 흔히 있는 놀이이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놀이를 즐겨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유래하였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다. 흔히들 인간의 놀이는 동물이라고도 하고 이 놀이에서 출발되어 문명을 창조해 왔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연장(延長)이 바로 인류의 문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실뜨기 놀이는 실을 양 손에 걸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뜨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 등 세계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놀이이다.

인디언들의 실뜨기 놀이는 백인들이 미국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그들은 이 놀이에는 어떤 마술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또 이 실뜨기 놀이를 손으로 뿐만 아니라 발가락, 이빨 입술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없이 혼자서 하기도 하는데 한국인들이 하는 것과 꼭 같다는 것이 놀랍다.

그 다음은 인디언들의 윷놀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들은 이것을 경마 놀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놀이에서 그들은 우리의 윷판 같은 둥근 판을 만들어 놓고 윷 길이만한 막대기를 던져서 그 엎어지고 잦혀지는 모양에 따라서 윷말을 쓰는데 막대기 수는 세 개로써 우리의 네 개와 다르다.

그러나 윷판 위에 말이 가는 방법과 상대방의 말과 겹쳐질 때 잡을 수 있는 등 우리의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도 우리 나라의 각 지방에 널리 퍼져있는 "고누"(꼬누)등 많은 놀이들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다.

맥팔랜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150여 가지의 인디언 놀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는 한국의 민속과 비슷한 것이 많아 그들과 우리가 한 뿌리 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 미주에 산재해 있는 "아파치"족들의 생활과 풍습 그리고 그 모습들이 우리와 매우 흡사할 뿐 아니라, 아파치라는 호칭 그 자체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다. 그리고 저 찬란했던 잉카문명, 멕시코 문명 등도 그 근원이 아시아의 동방에서 건너간 것이니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가 된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구전(口傳)된 민속노래(folk song)가 어렸을 적 시골에서 접한 노동요나 제례요(祭禮謠)와 너무나 흡사했다는 점이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어~어 어~어'로 시작되는 노래는 우리 농촌에서 죽은 사람의 상여를 메고 나갈 때나 입관식을 할 때 부르는 제례요와 같다.

한국인의 원류(源流)인 북방몽골계가 수만년 전 시베리아~베링해협(과거는 육지)~알래스카~북미~중 · 남미로 이동하면서 지금 에스키모, 인디언, 인디오들의 조상이 됐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수만년 전, 지금 바이칼호 부근 어느 곳에서 함께 살았던 조상들의 '한 뿌리' 자손들이라는 점을 상상 해본다.

물론 수많은 세월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한국인들이 한반도에 정착해 비교적 단일혈통과 습속을 유지할 수 있었듯이 미대륙 혹한지대나 고산지대에서 동화를 거부하고 전통적 삶을 고수한 원주민들도 있었던 것이다.

결국 에스키모나 인디언에게서 느낀 동질감은 수만년 전 '한뿌리'였다는 동류(同類)의식을 인류사를 준거 틀로 한 본능적 상상이고, 그 장구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수만년 전 조상들의 생활 습관과 유전인자가 지금껏 완강하게 후손들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디언 박물관 앞에서 확인한 셈이다.

티베트 역시 우리 북방 몽골계로 언어, 체격, 습속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곳은 지역적으로 서역 · 동남아시아를 향한 '관문' 구실을 하는 바람에 여러 종족 · 문화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

티베트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접하는 네팔의 경우 왕족은 무사계급으로 역시 몽골계다. 네팔 몽골계 중 날렵하고 산을 잘 타 한국 등반대 가이드 역할을 하는 세르파족의 경우도 단일혈통을 유지한 덕분에 한국인과 매우 비슷한 점을 갖고 있다.

역시 국경을 접한 미얀마는 물론, 동진(東進)해 접하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치앙마이 등 인도차이나 반도에 사는 고산족들 중에서도 '코리안'과 비슷한 몽골족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몽골 반점을 지니고 있고 기단문화와 한복 차림에 막걸리를 만들어 마신다.

그들이 말하는 방언도 우리 언어와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부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한국인과 가장 비슷한 종족은 부탄 사람들일 것이다.

이곳은 사면이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자 오지(奧地)로 다른 곳에 사는 몽골계보다 훨씬 주위 환경에 덜 동화된 채 북부 몽골계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탄과 미얀마 사이 인도 동북부 산악지대에 사는 나가(Naga)족들 역시 우리와 같은 몽골계로 앞으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필자가 캐나다 인디언 보호구역인 캐필라노 계곡 원주민 민속촌 까마귀가 앉아있는 장승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자 그들의 고된 인류의 행적들이 새삼 떠오른다.

제3반 일 본(가나자와)

| 연수국가 : 일본 (가나자와)
| 연수일정 : '07. 6. 1 ~ 6. 4
| 글 쓴 이 : 김 남 규 의원
| 연수인원 : 15명
정우성 의장, 최찬욱 부의장, 김명지 운영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장, 서윤근 · 장태영 · 김남규 · 이명연 · 국주영은 · 권정숙 · 박혜숙 · 구성은 의원, 허 광, 김종복, 김현우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정서적으로 먼 일본

대립과 갈등 회한의 역사를 딛고 교류와 소통이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와 일본국 가나자와시는 자연적 문화적 배경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전주시와 가나자와시는 6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국의 시장간 자매도시 협약 이후 문화쪽의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 문화단체, 4대축제 관계자, 문화시설 종사자, 한옥마을 주민, 시립예술단, 그리고 시의회 등 폭넓게 진행되고 교류가 정례화 되고 있다.

전주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 전통문화, 생활체험문화, 문화향유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이다. 마찬가지로 가나자와시도 일본의 4대 문화도시이며 지방도시로서는 전주와 비슷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 조성도시로 가는 길에서 사업추진과 연구의 벤치마킹이 활발하다. 교류를 통해서 대상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하며 윈-윈의 콘텐츠를 꼭 찝어내야 한다. 전주시의 맥락과 문화트랜드를 냉철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큐에서 예술까지 카메라 작가가 피사체를 잘 선정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과의 과정이 수미일관 되듯이 디자인에서 창조적 사업까지 유사한 듯하면서 독특함과 차별화로 개성을 분명히 글로벌해야 할 것이다. 교류에 임하면서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안목을 확대하고 상상력을 꿈꾸며 실사구시, 온고지신의 계승과 창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발바닥의 품팔이처럼 노력하는 자에게 땀방울의 지혜가 있었다.

첫째, 전통문화 보존, 계승하는 장인들과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문화자생력을 보았다.
둘째, 문화정책과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 예산의 지속적 투자를 관찰하였다. 특히 생태, 녹지, 용수, 전통문화보존 조례는 다양하고 구체적이었다.
셋째, 문화산업화, 상품화를 통해 관광산업과 컨벤션 산업이 연계되며 문화의 총량을 집중화시켜 과거, 현재, 미래가 일관된 흐름으로 미래성을 담보하고 있었다.

짧은 일정속에 느낀대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다. 방문의 일정은 대표적인 명소와 문화시설 위주의 성공모델이었다.
전주의 10년후 모습을 상상하며 차별화된 전주, 가장 한국적 도시 전주를 비교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2007. 6. 1(금) - 방문 1일차

1. 고마츠공항

오전 9시 15분 인천국제공항 탑승수속을 모두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 약 두시간만인 10시 15분 고마츠 공항에 착륙했다. 간단한 입국 수속을 한 후 로비로 나오니 일본 현지시간 11시 33분이다. 가나자와시의회 및 시국제문화과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버스를 타고 교류방문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고마츠 공항은 일본 열도의 중간부분에 있는 호쿠리쿠(北隆)지역에 있는 공항이다.
'호쿠리쿠'지역은 가나자와시가 있는 이시카와현, 동북쪽에 인접한 도야마현, 서쪽에 인접한 후쿠이현의 3현을 말하는데, 에도시대(17~19세기 봉건시대)이래 농업이 발달된 지역이다.
공항 로비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로 북적였다. 이제 한 일 교류는 지역도 다양해졌으며 수학여행으로까지 폭넓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과 고마츠 공항은 주4회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2. 30km 해안도로 스케치

고마츠 공항에서 가나자와 시내까지 거리는 약 30km거리 40여분이 소요된다.
일본 호쿠리쿠지역의 첫인상이 차창 밖으로 이어졌다. 모내기를 마친 반듯반듯한 바둑판 모양의 논과 하늘 그리고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 흰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가, 물살과 파도, 바람의 재해에 대비한 방풍림과 가로수인해송나무가 아름다운 해안 풍광의 고요와 평화를 그림처럼 보였다.

3. 가나자와시의 어제와 오늘 (전통산업과 관광, 컨벤션산업)

가나자와시는 에도시대이후 약 280년 간에 걸쳐 형성된 왕성한 마을로 동경, 교토, 오사카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았던 일본 4대 문화도시 중의 하나이다.

일본 북동지역 호쿠리쿠 지역의 중심도시인 가나자와시는 쌀 농사 및 농업과 관련된 산업, 도자기, 공예 등 전통문화가 발달된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없었던 덕분에 현재도 당시의 마을의 원형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 인구는 46만명이며 IT산업, 기계, 섬유, 전통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다.

가나자와 역에서 항구에 이르는 지역은 비지니스 지역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었다.
시가지의 도시계획은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었다.
시가지는 동적 구역인 비지니스 상업지역과 정적 구역인 전통문화 보존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를 재생하고 있었다. 또한 가나자와 문화자원은 도자기, 오케스트라 앙상블 가나자와 다도, 전통과자, 금박 등 다양하나 그 중에서 전통공예와 음식문화는 세계화를 위해 뻗고 있다.

기상변화가 심하고 비와 눈이 많아 '도시락은 잊어버려도 우산은 잊지마라'는 격언이 있듯이 관광 때 우산과 우의는 필수적이다.
구시가지와 전통가옥보존지구를 천천히 거닐어 보니 일본의 참모습과 속살을 느껴보기 좋은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양한 관광명소, 볼거리, 먹거리는 문화의 차이를 느끼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봄의 꽃놀이, 여름의 백만석 축제(6월9일), 가을의 단풍과 유키즈리, 겨울의 유와쿠 빙설, 눈축제 등 사계절 이벤트가 있다.
가나자와를 찾는 관광객수는 년간 700만명으로, 최근에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과 컨벤션 산업을 육성 중에 있다.

세계도시를 꿈꾸는 가나자와시는 2006년도 324건의 회의를 유치하여 8만명의 외지인이 다녀갔다. 100억엔 규모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었다. 전통문화산업을 바탕으로 도시에 현대적 기능을 보강하고 결합하여 미래도시를 향하여 세계의 창문을 꿈꾸고 있었다.

4. 가나자와 사이강 천변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생각에 잠기어 있다 보니 가나자와 니시(서쪽)게이트를 통과한다. 통행료 900엔, 온도 24℃, 마침 비 개인 오후 멀리 청명한 산과 맑은 강변, 시가지, 주거지가 바짝 다가온다.

가나자와는 두 개의 강이 도심을 관통한다. 사이강과 아사노 강이다. 청정한 물, 실개천, 샛강이 전주천의 생태하천과 비슷하다. 멀리 해발 900m 지역 의왕산에서 발원하는 물줄기이다. 가로수는 벚꽃이며 천변 둔치의 도로를 끼고 산책하는 기분이 상쾌하다.
전주 천변 시가지와 다른 것은 주변 건물들이 아파트가 아닌 2층 이하 목조건축물이다. 천변의 바람 길과 자연경관은 도시를 한층 격조 있고 풍요롭게 하는 듯 했다.

가나자와 사이강 천변

5. 점심(12:15 ~ 13:05)

2층 목조 일식집이 일열 종대로 줄지어 있는 사이강 천변의 갓 길에 내려서 좁은 입구의 실내로 들어서니 일본 가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다다미방이 있었다. 2층으로 된 30년된 음식점에서 가벼운 점심을 했다.
한 · 일 친선 지방의원 및 참석자 상호 소개가 이어지고 가나자와시청 직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날씨와 음식문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서먹서먹한 연수의 일상적 소재는 의식주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1년중 6개월은 눈과 비가 내리는 우기가 길고 습도가 많은 지역이다. 전주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먹거리 문화가 인상적이었으며, 가나자와의 문화 · 예술과 비슷한 인상을 받았으며 위화감이 없었다"고 전주의 인상을 전했다. 일식집에서 다다미문화, 식도락 체험을 한 후 천변의 맑은 물줄기와 시원한 바람길, 생태적 조건 등 도시 주거조건에 필수적인 물, 치수관리가 자연과 인간은 한 덩어리임을 느끼게 하는 상생이다.

가나자와시도 "오랜 시간동안 물의 범람과 홍수가 골치거리였다"고 한다.
오랜 시간 자연과의 투쟁속에서 치수와 용수보존을 경험하여 도심속의 개천이 맑아지는 자연형 하천이 되었다고 들었다. 쉽게 얻어지는 경관(자연하천)은 아무것도 없다.
가나자와 도심 중심부인 고림보(香林坊), 햐쿠만코구(백만석)거리, 사무라이 마을인 나가마치(長町)등

도심속 빌딩사이로 실개천이 흐르고 잉어가 올라오고, 건물과 거리의 광장에는 친수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었다.

전주시의 구도심을 흐르는 노송천, 건산천, 공수내는 생활폐수로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멈추어버린 분수대는 고장난 기계에 불과하다. 친수공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도시계획과 건축물 설계 조경식재 등이었다.

6. 가나자와시 구도심 중심지역 (13:15)

고림보 구역에 있는 뉴그랜드 호텔에 여장을 풀고 한 · 일지방의원 친선 교류의 일정을 시작했다. 정장을 차려입고 가나자와 시청에 도착하니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직원과 의원들이 도열하여 박수로 환영을 해주었다. 손님 접대에 최선을 다하는 친절하고 상냥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오후2시35분)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야마데타모츠 시장의 공식 환영사가 있었다.

- 환 영 사 -

"한국의 친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전주와 교류를 하게되어 좋았습니다.
역사 · 문화적으로 전주와 가나자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 중에서는 식문화가 비슷한게 많습니다.

전주시와는 2002년(6년째), 전주시의회는 2004년(4년)교류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피해를 입지 않은 가나자와는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잘 보존 계승하고 있습니다. 문화에는 개성이 있습니다. 전통문화가 많다보니 보존, 계승의 인식이 강합니다. 남겨져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호교류를 통해 안목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56회 햐쿠만코쿠 마쯔리(축제)를 잘 보아주시고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 시의회 방문(15:00 ~ 16:00)

같은 건물내에 있는 의회쪽으로 이동하여 40명의 가나자와시의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전주시의회 의원과 가나자와시의회 의원들의 소개를 마치고 인사를 교환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자리에서 양 시의회 의장들은 문화, 교육, 복지, 스포츠 등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깊은 관계를 이어가자고 역설했다.

8. 야마데 타모츠 시장

야마데시장은 2007년 4월 지방선거에서 내리 5선에 당선되어 17년째 시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과 공무원 사회의 절대적 지존이다. 52년째 가나자와시에 장기 근속을 하고 있다. 1931년생으로 75세 노령에 불구하고 아직 정정하다. 낮은 목소리 깔끔한 인상, 겸손하고 소박한 성품, 문화에 대한 집념, 강한 추진력과 많은 경험이 오늘의 가나자와시를 세계 도시로 향하게 하는 엔진이고 성장동력이다. 힘의 원천은 사람이었다. 훌륭한 지도자가 부러웠다.

노익장. 가나자와시의 살아있는 전설처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문화감독(디렉터)이다. 정치적위상은 자민당 등 유력 정당출신이 아닌 무소속 선출직 시장으로서 현재 시민들의 70%이상 지지도를 얻으며 상승 중에 있다고 한다.

야마데 시장은 세계 최고의 유일한 것만을 꿈꾸는 행정 및 문화 전문가이다.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배웠다는 2가지 개혁 과제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마이카를 절제하여 거리에서 자가용을 없애는 게 꿈이라고 한다. 둘째, 도심의 간판정비를 잘하고 싶다고 했다.

9. 도로나가시 축제 (18:30)

저녁 노을이 지는 아사노강 천변에는 교통이 통제되고 시민들은 강변에 모여들었다. 연등을 강물에 띄워 흘려보내는 행사이다.

도로나가시 축제

제 33회째를 맞았다. 네모진 나무틀의 연등에 소원과 희망을 새기어 불을 밝히는 연등행렬.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물결 물빛 물소리처럼 아사노 강물에는 1200개가 띄워졌고 어두워질수록 등불은 더욱 따뜻한 빛으로 강을 따라 흘렀다. 물밀듯이 연등행렬이 이어지고 천변, 도로, 다리 난간에는 시민들과 구경꾼이 줄지어 모여들었다. 강의 둔치에서는 스님들이 주문과 염불제례를 하며 한쪽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제전위원장 등 지역의 유력 유지들이 순서에 따라 강물에 등을 띄웠다.

밤을 밝히는 횃불이 타오르고 가무와 노래가 애잔하게 이어진다.
2007년 6월 16일 전주의 단오제에서도 2007개의 연등이 덕진 연못 주변을 밝힌다고 한다. 간절하게 기원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정성처럼 어둠에서 희망을 찾는 등불, 등불이 모여서 꿈을 기원하며 여러 사람의 꿈이 모이면 현실이 되겠지요? 가상의 공간을 현실화하는 도로나가시 축제는 어둠을 밝히는 볼거리였으며 장관을 이루었다.

10. 의원 만찬회(오후 19:30 ~ 21:00)

아사노 천변의 송어정에서 의원들간의 인사 · 대화가 이어지고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음식과 술의 건배, 주거니 받거니로 이어졌다. 옆자리는 '히라타의원님'이다. 10선 의원으로 경륜이 풍부하고 오랜 경험이 존경스러웠다.

가나자와시의회에는 경험이 풍부한 노익장의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40년간 지방의원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전설 같았다. 40명의 의원 중 3선 이상 의원이 18명이다. 일본은 지방의회 역사가 깊었으며 직업적 의원과 대물림 의원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다.

친교를 통해 마음을 열고 대화가 깊어졌다. 일본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류의 시간이었다.

2007. 6. 2 (토) - 방문 2 일차

1. 아침산책 (05:30 ~ 07:30)

2시간 동안 시청 근처까지 구도심을 산책하며 이국의 아침 풍경을 눈에 담았다. 혼자 걸으면서 느끼고 기억하고 배우고 싶은 순간과 장면 등은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았다.
'대상물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셔터를 찰칵, 도시공간, 거리경관 호기심 있는 피사체, 문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로, 소통과 매개의 싸인물, 상징물, 홍보물 등이었다.

가나자와의 대표적 신사인 오야마신사에 들어가니 정원(에도시대에, 마에다 토시이에를 모신 사당), 숲이 우거지고 조경이 잘된 나무, 시냇물, 연못에는 잉어가 화폭의 그림처럼 유유자적 했다. 새벽기도처럼 신사를 찾는 여인네, 조깅하는 할아버지가 눈에 띈다. 가나자와는 성하마을로 정원과 주변도로 꽃길이 가로수와 함께 꽃밭처럼 꾸며졌다.

꽃길

21세기 미술관, 시청, 이시카와 근대문학 박물관, 고림보지역 뒷골목, 음식의 거리, 술집, 사무라이 마을을 거쳐 가나자와 문화센터까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걷는 행복으로 연수의 공식일정을 이탈한 해방감을 보너스처럼 누렸다. 모처럼 일정에 쫓기지 않는 나만의 공간, 사색의 시간이었다.

2.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09:30 ~ 10:30)

가나자와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구도심 살리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구도심의 중심에는 문화시설과 명소가 집중되어 있었다. 시청, 가나자와성, 켄로쿠엔(정원)등 명소가 옹기종기 모여있다. 2004년 10월 9일 개관한 미술관은 구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문화시설로 사업방향을 정했다.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야마데 시장의 아이디어와 의지로 진행한 사업으로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한다. 이러한 준비성은 이벤트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풍토에서 배워야할 좋은 교훈이었다.

준비한 내용과 구체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작품 및 소장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예산편성의 연차별 계획, 운영계획, 시민참여형 미술관 계획 등이다. 그리고 컨셉은 전통에 대한 집착이 많은 가나자와 전통문화에 충격을 주면서 현대적인 것의 부족함을 채우는 새로운 공간의 도입이었다.
새로운 창조문화가 적었기 때문에 보수적 풍토에서 문화적 충격과 문화충돌이었다.

시장께서는 문화적 충격을 가하기 위한 역발상의 모험을 했다. 계획 초기에 시민들의 저항은 아주 심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화가나 미술애호가 몇몇만 이용하는 미술관이 구도심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과 현대 미술관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었다. 시민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듯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만지고 올라타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설물의 배치 및 공간구성, 운영프로그램이 시민과 가까이 하는 시민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관 첫해에만 157만 명이 미술관을 보기위해 가나자와를 방문했으며 지금도 수없이 많은 관광객과 수학 여행단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다.

가나자와의 새로운 랜드마크, 명물로 뜨고 있다. 덩달아서 야마데 시장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었다. 거센 저항에서 짱으로 뜨는 단체장의 소신은 지방자치시대 역발상의 스터디 과제 아닌가!
지금 세계의 도시들은 도시마케팅과 이미지 브랜드 개발에 문화를 접목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관, 프랑스 아를르의 고호 미술관, 프랑스 액스프로방스의 세잔느 작업실 등 정지된 공간, 문화갤러리에 미술애호가와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사전 예매를 기다리고 있다.
도심속의 문화시설이 사람들과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창조 공간의 역할을 하는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도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스페인 빌바오는 철강 조선사업이 주종을 이룬 중공업 도시였으나 산업 공동화로 침체에 빠졌다. 고민 끝에 불황을 탈출하고자 문화산업을 계획하여 때마침 최고의 현대 미술관인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미국 건축가 프랑크 게리(F.Gelry)가 현상설계를 공개모집한 미술관으로 1997년 완공되었다. 역시 건축초기 시절에는 예산낭비와 문화적 종속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미술관 하나가 갖다 준 스페인 최고 건물로 건축학도 그림 애호가 유럽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하여 빌바오의 과거와 미래를 표현하고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물고기 비닐모양의 항구도시 이미지와 철강산업을 표현한 건축물은 사방에서 바라보는 입면적 측면의 외관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전통과 현대미를 결합시킨 미술관이다.

역시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도 투명한 원형의 공간, 360°유리벽으로 구성된 외관의 개방성과 연계성을 이루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다방향성을 연출하는 사고의 발상이다. 밖과 안의 다른 공간을 하나로 소통하는 만남의 효과는 '누구나 주인이다.'라는 안과 밖이 바뀌는 느낌이다. 이러한 개성있는 건축물이 탄생되기 까지는 세계적인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SANAA 건축사 그룹의 세지마카즈요(50대 여성), 리시지와루에(40대중반 남성) 일본인 건축가의 당선작으로 설계, 건축되었다.

【 21세기 미술관의 공간구성 】

현대미술과 현대미술관은 난해하고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친근감 없는 것을 편하고 쉽게 관람하는 기획, 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 관람객의 눈높이 뿐만 아니라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에 많은 고려를 하고 있었다.

1) 키즈 스튜디오는 가족단위 어린이까지 놀 수 있는 공간 작품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전시실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기고 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 탁아방도 있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실 및 시민 갤러리 공간이 있다.
2) 시민 갤러리 공간
그림, 조각, 공예, 책, 사진, 영상, 꽃꽂이 등 폭넓은 분야의 전시가 가능하다.

3) 프로젝트 공방
미술관 본관에 인접한 스튜디오형 공간, 아티스트들이 머물면서 제작할 수 있는 '창조의 장'이 있다.

4) 디자인 갤러리
다양한 가치관과 표현을 담은 디자인 발신의 장으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지향하며 정보 교환에도 활용되고 있다.

5) 수영장이 공간 미술품이다.
아르헨티나 레안드로(Leandro)작품인 2004년 swimming pool
'투명한 강화유리 안에 물을 이용한 수영장의 수면을 경계로 지상과 지하(수영장 내부)에서 서로 보이도록 만든 유니크한 작품' 인데 어린이들에게 인기짱이다.

6) 하늘이 보이는 작품 전시실
젊은이들에게 인기있는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전시실
빛을 주제로한 공간작품, 하늘을 작품의 일부로 처리함으로써 '하늘의 움직임'을 정숙함과 빛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

7) 길이 13m, 높이 5m의 벽면을 식물 생육작품, 계절에 따라 사시사철 식물의 성장, 멈춤, 색깔, 싹트고 자라고 말라비틀어지고 생명현상을 관찰한다.
식물군 중 변하지 않는 녹색 식물도 있다.
가나자와 근교에서 채취한 70여 종류의 식물로 작품을 만들었다.
프랑스 출신 페트리크 브랑크(patrick Blanc) 2004년 작품

8) 나팔꽃 프로젝트
360°유리벽을 이용한 나팔꽃 기획전은 일본 전국의 각 지방의 품종이 다른 나팔꽃과 토양을 가져와 시민들이 직접 심어서 흰줄을 타고 벽면을 녹화하며 꽃이 피는 것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미술관 외관 외벽의 변화를 느끼면서 공간과 식물의 변화를 인식하는 아름답고 다양한 나팔꽃을 느낄 수 있다.

나팔꽃 프로젝트

9) 다도 체험실
미술관 부지의 파란 잔디. 쨍쨍 내리쬐는 햇살, 하쿠만코쿠 축제 기간이라 인파가 북적거리는 다도

체험실, 일본의 전통 목조가옥을 옮겨와(이축) 정원을 꾸미고 울타리를 쳐서 만든 집이다.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 대한 총 평가는 건물(하드시설)과 프로그램(콘텐츠 운영)구성이 쌍방향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기획이 돋보였다.

【 21세기 미술관 운영 】

2004년 10월 9일 개관, 1500억 예산투자, 1년 운영비는 50억원이다. 개관이후 2년 6개월 동안 관람객수는 300만 명이 방문했다. 연간 입장수입은 11억 엔이다. 현재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나 적자를 감수하면서 문화시설(미술관)에 투자하는 것은 주변의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1세기 미술관을 중심으로 쇼핑시설 등 매출을 합해 연간 323억 엔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식 단층 원형구조의 미술전시관을 뛰어넘어 도심활성화의 중심축이었다.

주변 상가의 매출이 증가하고 백화점, 음식점, 패션가 등에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부가적 경제가치 효과가 약 15억 원 이상 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된 운영 프로그램이 성공 요인이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운영 활용계획 유지보수와 비교해보았다. 그들은 이벤트 계획이 아니고 국책사업 끌어들이기도 아닌 철저히 10년간을 연구하고 준비한 순수한 시비를 투자하여 만든 새로운 공간 창출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명소와 부가성을 줄 것이다. 장소마케팅의 성공사례로 다각성, 미래성, 전문성의 결집이다.

【 미술관의 투명 유리벽과 원형공간, 입출구 】

미술관의 출입구는 4곳이다. 어느 방향에서나 출입이 가능하며 주변을 파란 잔디위에 공원처럼 꾸몄다.

미술관 안쪽으로 진입하면 무료입장 공간과 유료입장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료존(전시, 기획전)과 무료존(zone) 경계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미술관 내부로 햇빛을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거나 혹은 차단시킬 수도 있다.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밝은 분위기와 개방감이 느껴지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공간 자체가 미술관의 얼굴처럼 지상에서 보든 하늘에서 보든 하나의 작품이다.

【 아키모도 관장의 안내와 설명 】

40여분 동안 관장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21세기 미술관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며 가까워질 수 있었다. 혼자서 사색하면서 상상력을 키우고, 호기심으로 바라보며, 관찰력이 필요한 관람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전문가(관장)의 도움으로 현대미술의 벽을 쉽게 뛰어넘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도움도 필요하다. 전문가의 안목과 대중적 관찰이 소통하는 해설이 미술관의 흥미를 유발했다. 훌륭한 설명과 해설이 있는 안내였다.

난해한 현대미술을 생활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가이드의 해설과 스토리 및 안내까지 21세기 미술관의 투명한 유리벽을 공감할 수 있었다.

"21세기미술관은 현대미술관이고, 현대미술에는 국경이 없으며, 한국, 중국,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의 작품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3. 노가쿠(能樂) 미술관 견학 (10:30 ~ 11:10)

노가쿠 미술관

가나자와 미술관 부지 내에 투명한 강화유리로 만든 3층 건물이다.
能樂라는 일본 전통 가면극의 역사, 형태, 도구, 양식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미술관이다. 현대적 시설에서 전통 예능을 보존 전승하는 시스템과 교육프로그램을 견학했다.

1층에는 노가쿠 무대와 설치 공간, 등장인물, 노가쿠 주인공, 구성요소, 가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노가쿠의 스토리텔링을 화면과 자료로 재구성했다.

3층의 체험실 다다미방의 바닥에서는 고요와 적막이 흐르는 몸짓이다. 기모노 복장의 초등학생들이 일본의 전통 가면극인 노가쿠의 기본을 배우고 있었다. 전통 공연예술, 자신들의 문화를 스스

로 계승 보존하는 사회교육체계, 상설 학습장이었다. 어릴 때부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보존하는 현장이 우리의 현실과 비교되었다. 한국에는 유소년 사회축구단은 많이 있으나 유소년 문화 체험 캠프는 방학 때만 일시적일 뿐이다.

세계 문화유산의 판소리를 비롯하여 필봉농악, 사물놀이, 전주굿, 계룡 기접놀이 등 우리전통 공연문화의 맛은 성인이 되어 잠시 동아리 활동으로 배우거나 취미생활로 맛본다. 쓸만한 전수관도 없고 전통예능 보유자도 대가 끊기고 있으며 교육자료도 빈약하고 교육 체계도 상설적이지 않다.

전주 전통문화 도시 사업에서 유 · 무형의 문화, 예능 보유자들의 체계적 인력 양성 없이 콘텐츠는 발달될 수 없다. 건물과 문화시설들만 무수히 지어대다가는 운영비가 부족하여 문을 닫을 것이 뻔하고 내용은 부실해질 것이다. 왜 문화시설만 보이고 사람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가! 사람과 예능, 문화 창조자들에게 투자하지 않는 우리 현실은 앞 뒤의 순서가 뒤바뀐 사고이고 정책이다.

작은 시설을 빌려 임대해서라도 굿 보존회, 시조, 민요, 창, 춤 등 특화프로그램, 우리의 전통문화 보존 계승 프로그램을 전주 것으로 만들어서 전주 전통문화 및 공연예술을 보존 · 재창조 하여 계승해야 한다.

전주굿을 살리자. 한스타일과 한브랜드도 사람중심의 운영프로그램이 선행될 때만 지속가능한 지름길이다. 문화에도 삶처럼 개성이 있다. 세습풍속과 창조의 어울림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이다.

4. 겐로쿠엔(兼六園,11:25 ~ 12:00)

직사광선이 거리로 쏟아지는 정오의 태양, 햇빛은 반짝거리고 주말의 거리는 분주했다. 직사광선이 거리로 쏟아져 눈이 부시었다. 다행히 도시에 숲이 많아서인지 헐떡거리지는 않았다. 걸음은 늘어지고 무거워져 갔다.

겐로쿠엔은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로 특별 명승지이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정원 풍광을 보기 위해 일본 도처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겐로쿠엔 스카이라인 시가지조망

광대함, 유수함, 인력, 장고함, 수천(물), 조망의 6개 테마를 가지고 조성된 절경을 갖춘 정원으로 가나자와 시가지를 조망하는 스카이라인도 멋지다.
330년 전에 만들어진 연못이며 무사들의 권력을 상징화한 소나무 위용이며 일본인들의 분재습성, 인공성과 조형성을 들여다보는 관찰포인트 공간이다.

또한 도심부 중심에 위치하여 언덕과 능선이 이어진 자연생태 환경과 역사가 잘 보존된 경관이고 공원이다. 바로 옆 도로 반대편에 있는 가나자와 성과 성벽도 볼거리 코스이다.

34,000여평의 면적으로 19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처음 시작은 자연취락 부락의 힘든 사람들에게 일거리와 고용창출 등 취로사업으로 공원은 시작되었다. 1538년 봉건영주 '마에다토시이에'가 가나자와 성에 입성한 후 1869년까지 14대에 걸쳐 사용되었다. 공원이 시민들에게 개방된 것은 100년 전이었다고 했다.

연꽃방죽 덕진연못의 특색과 비교해 보았다. 악화되는 수질에 단오창포는 옛말이고 덕진채련 전주 팔경의 역사성과 비보 풍수성만 간직한 채 볼거리와 품격을 잃어가고 있다. 누구를 탓할까? 탓! 탓! 탓!

5. 금박공예 체험 (13:45 ~ 14:50)

전통문화 보존구역의 히가시차야 거리에서 5분 거리의 블럭인 금박공예공방 판매점에서 금박체험을 했다. 문양을 그려 넣고 붓칠하여 금박을 입혔다. 전통 문화를 보존하면서 산업화 상품화하는 현장체험을 했다.
전주의 한지체험, 공방체험과 비교해보았다. 빠른 지름길만 선택하는 디지털의 변화흐름에서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가시밭길이다.

기능전수자와 장인들은 대가 끊기어 사라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은 "염불은 외면하고 잿밥만 탐한다". 전통문화, 유 · 무형의 공연, 문화재 보존의 길은 배고프고 어려운 가시밭길이다. 그래서 공공의 도움과 공적인 투자가 절실하지 않는가! 그런데 예산투자는 후순위로 밀린다.

6. 히가시차야(東茶屋街)

1820년 사이강 서쪽에 있는 니시와 함께 아사노강 동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히가시차야

전주의 한옥마을과 비교해 보았다. 2층 집들이 죽 늘어선 거리로 1층은 출격자로 되어 있고 2층은 건조물을 높게 하고 다다미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차야의 집들이 늘어서 있다. 현재도 게이샤들이 전통적인 무용 노래를 배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998년 가나자와시는 히가시와 니시차야거리에 대한 마을 경관사업을 개시하였다. 전통 건조물 보존지역으로 180년간 외형이 변하지 않은 정지된 시간을 가진 귀중한 마을의 모습이 원형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180년 전의 중세마을로 되돌아가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옛날 가나자와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기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2층의 목조건축물, 가로등, 격자형도로, 나무, 목재, 창문틀, 창호가 그대로 남아있는 요정의 거리이다.

2001년부터 마을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충실한 지원책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건조물은 전통건조물 91동과 일반건조물 52동으로 총 143동의 건조물이 있다.

전주 한옥마을도 700여 채의 도시형한옥으로 군을 이루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에

한옥마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벌리고 있다. 건축의 양식, 건축물의 재료, 가옥의 형태, 집 들의 삶이야기 등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7. 햐쿠만코구 마쯔리(百萬石(16:30 ~ 18:00)

햐쿠만코구 마쯔리

한국말로 풀이하면 백만석 축제이다. 지역과 인물의 자부심을 테마화한 축제이다. 이러한 역사축제에는 전설이나 사설. 설화 등, 스토리텔링이 숨어있다.

백만석은 권력과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과 장소이다. 논농사 평야지대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백만석의 지역성과 의인화된 영웅이름을 '백만석'으로 지칭한다. 시청앞 도로이름도 백만석 거리이다.

햐쿠만코쿠 축제는 백만석의 상징적 영웅인 '마에다'번주가 가나자와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축제의 하일라이트는 4시간에 걸친 긴 퍼레이드(가장행렬)이다.
초·중·고·사회단체 등 25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장행렬→오프닝행사→신사행렬→사무라이 행렬 →사자춤→소방음악대, 밴드, 관악대, 곤봉퍼레이드 등 긴 행렬이 4시간 이상 뜨거운 자외선 햇살에 흐트러짐 없이 즐기는 참여열기가 대단한 시민참여형 대동축제이다.

농경시대 가을 운동회 때 마을들이 참여했던 그때 그 시절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빨리빨리 급속한 산업화에 사라진 공동체와 전통문화 예술이 아쉽고 그리웠다. 거의 4시간동안 백만석 축제의 가장 행렬을 관람하면서 우리 문화의 자화상을 떠올렸다.

한편 일본 교토의 기온 마쓰리(축제)는 거대한 가마들의 화려한 행진이다.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제의에서 출발했다. 1979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일본의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교토의 기온마쓰리, 도쿄의 간다(산자)마쓰리, 오사카의 텐진마쓰리는 일본3대 축제이다.

일본도 축제를 대동문화의 활성화 및 공동체 유지, 지역상공업 진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며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지원 지지하고 있었다.

8. 밤거리 축제관람 (19:00 ~ 21:00)

축제의 일정에 맞춘 연수와 교류의 특혜가 고마웠다.
어둑어둑해지자 가나자와의 주요 거리는 인파로 가득 채워졌다. 외국의 축제관광 현장에서 생동감을 느끼는 이국적 흥분이다. 곳곳이 교통통제, 차량유도, 안내이다. 46개 단체에서 8,500명이 등록했지만 만여 명이 직접 참여한 가무와, 율동이 어우러진 행렬이 장관이다.

밤거리 축제관람

기모노를 입고 일본 전통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흥겨워하는 축제 현장은 질서정연했다. 자발성이 몸에 밴 신나는 표정, 흥에 넘친 몸 사위는 시민 모두가 축제의 주인이었다. 축제 기간 중 거리 포장마차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축제이후 거리는 평상시처럼 깨끗하다. 일본인들의 평소 생활습성을 확인했으며 밤이나 낮이나 재난시나 평화시나 차분하게 역할에 따라 대처해가는 몸에 밴 습성이 전율을 느끼게 했다. 또한 가나자와시가 전통공예 공방과 전통공연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노력은 마을단위로 대대로 내려오고 관습화 되어 있었다.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는 거리단위 - 마을단위로 구획을 블럭화한 문화 살림 공동체에 소폭의 보조금을 주고 있었다.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실사구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생활속에서 문화예술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일상 생활에서 시민들의 60%이상이 예술과 공연을 향유하고 즐기며 계승하는 층이 두터웠다. 경제적 뒷받침과 소득수준이 높아질 때 문화는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

사석에서 만난 가나자와시의원은 한국의 가족제도를 부러워했다. 그런데 한국도 주거문화가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공동체 문화가 붕괴되는 해체 과정에 있다. 아직도 일본은 거리나, 마을의 작은 단위로 공동체 문화가 유지 지속되고 있었다. 산업구조, 주거양식, 라이프스타일과 전통문화 계승, 향유와는 관계가 깊다. 쉽게 접하는 TV, 영화, 영상문화는 한류문화의 전파성과 파급력을 확대하지만 한류문화의 지속성과 창조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위기를 체감하는 축제 관람기였다. 문화 예술의 분야의 예산투자 항목을 다시 살펴보는 기회였다. 경제적 선진국과 문화적 선진국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문화 사업의 선도분야 선정 사업과제의 우선순위, 공공부문과 민간참여의 확대, 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 선택과 집중 등 문화 발전소를 만드는 일이다.

2007. 6. 3(일) - 방문 3 일차

1. 헌화 분향 (10:00 ~ 11:00)

가나자와시 공동묘지 한켠에 있는 윤봉길 의사 사적지에 헌화 분향

헌화분양

2. 가나자와 직인대학교 (11:00 ~ 12:05)

문화인력, 문화재보수, 전통장인을 양성하는 실습위주 대학이다.
이 일을 업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서 교육생을 선발하여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교육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통가옥 보수 및 건축에 있어 전문가중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모두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7시 이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실습을 한다. 50명의 연수생이 3년 과정의 실습을 통해 고도의 기술 기능보유자가 되지만 그에 따른 라이센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수업료는 무료이고 시에서 연간 5,500만 엔의 지원을 받고 있다.

분야는 석공, 창호, 문틀, 벽면, 와공, 조경, 대목(목수), 다다미제작, 판금, 목판디자인 이다. 수료를 마치면 문화재보수, 전통가옥보존, 수리, 정비 등 현장에 투입된다.

가나자와 직인대학교

가나자와시가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시에서 운영하는 직인대학은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의 보수와 보존과 한옥건축, 황토방 건축, 흙문화 웰빙건축 붐 등 미래에 대비하여 도입해야 할 과제이고 제도이다. 가칭 '한옥연구소', 한옥 및 전통가옥 연구원처럼 문화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문화인력과 기술장인들을 키우는 게 전주 전통문화도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첫 번째 사업일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는 사람이 이어가고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시민예술촌 (11:30 ~ 12:05)

시민예술촌

직인대학교와 같은 부지내에 있는 시민 예술촌은 일요일이라 시민들로 붐비었다. 햇빛에서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최근 중국의 학교에서는 체력 약화를 우려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햇빛 속에서 한 시간 동안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놀이공부 물 속에서 물장구치기, 자전거타기 등 놀이문화를 가족단위 동아리 단위로 하고 있었다. 시민예술촌은 3개의 대형 홀과 다양한 연습실이 있다. 예술, 창작, 전시, 공연, 연극, 음악, 그림, 수예, 춤 등 시민들의 끼와 재능을 훈련하고 전시중 이었다. 밴드연습, 보컬그룹, 코러스 발성연습, 연극훈련, 수공예 전시, 방음, 조명시설, 휴게공간도 리모델링 되었지만 일품이었다.

효율적인 재생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진 모범 사례이다. 우리도 농촌폐교를 문화시설과 창작공간으로 활성화한 사례가 많지만 교통접근성에 일상적 접근은 힘들고 전업 작가들의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돌려주는 공공업무와 의지가 부러웠다.
이용자에게는 두 가지 당부가 있다고 한다. 불조심과 쓰레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용자에게 자유도 보장하지만 책임도 있다.

시설 이용율은 년 간 65.3%이며 년 간 20만 명이 찾는 곳이다. 운영자금은 시에서 지원하며 운영은 시민 감독제를 하여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었다. 가나자와 시민 3명중 1명은 스스로 아마추어 문화예술가로 자존심이 높다. 이용료는 6시간 기준 8천원 ~ 4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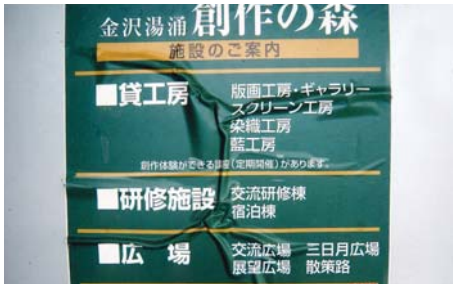
과거에 이곳은 방직공장이었다. 그런데 섬유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폐허된 공장부지 3만평을 시가 매입하여 공장은 헐고 창고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문화시설로써 1996년에 개관하였다.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이용료와 연간무휴로 365일 24시간, 시민에 의한 자율적 운영이라는 혁신적인 운영방식을 과감히 채택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외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4. 유와쿠 창작의 숲과 온천지대 (12:50 ~ 13:25)

가나자와 시내에서 약 15km 떨어진 이오산 기슭의 숲은 온천욕과 산림욕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휴양지이다. 일본적인 멋과 가나자와의 거실이라는 별칭의 관광 포인트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일요일 오후라서 도심에서 유와쿠로 가는 도로는 한산했다.
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숲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가나자와가 어디서 보아도 아름다운 생태도시라고 느껴진다.

5. 창작의 숲

2004년 개관된 창작의 숲 건물은 새 건물이 아닌 100년 이상 된 목조 건축물을 옮겨와 개조한 문화시설이다. 댐 건설로 마을이 물에 잠겨 수몰될 아까운 건축물을 옮겨와(이축)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고자 산기슭 언덕의 조망이 뛰어난 경관지역에 문화시설로 개관했다.



창작의 숲

원래 이곳은 '호텔 자리였다가 민간 박물관으로 이용되었다가 지금은 창작의 숲으로 변했다.'고한다.

오래된 민가를 각각의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창작의 숲은 공방과 민박시설로 이용된다. 판화공방, 천연염색 공방을 프로, 아마추어들이 이용하며 숙달된 공방 동아리들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

민박시설은 24명이 동시에 이용가능한 건물의 2층에 있다. 회사연수, 요가, 공연연습, 음악연습 때 사용되기도 하며 초 · 중 · 고 학생들의 숙박, 체험시설로 이용된다.

1년 이용객수는 2만 명이다. 재단을 통해 운영하며 3억 원의 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직원은 5명이 근무 중이다.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이용되며 반나절 판화공방 이용료는 3천 원이다. 커피 한 잔 값으로 시민들은 예술창작 공방을 이용할 수 있다.

6. 온천지대

가나자와의 산림욕장으로 삼나무와 대나무가 빽빽하였고 산소를 뿜는 허파로서 휴양시설들이 산의 적막 속에 빨려들어갔다.
집단시설지구로 다다미방과 노천목욕탕, 기모노복장으로 갈아입고 온천욕을 한 후 다례 체험하는 코스는 피로를 말끔하게 깔끔하게 씻어 내렸다.
온천지대 내에는 이축한 산촌의 전형적인 건축물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하여 주거 박물관처럼 단지화 되고 있었다.

7. 스가누마 합장 취락가옥

일본 전통가옥

1995년 12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일본의 민가이다. 좌우경사가 급격한 합장 모양의 지붕은 산의 험한 기후, 폭설, 풍토에 알맞게 고안된 구조, 지붕양식이다. 나무, 두터운 집, 억새지붕, 내부공간구조는 현재 일본 가옥구조와 똑같다.

8. 가나자와 기차. 고속철도 역사

유와쿠 온천지대에서 2시 50분 출발, 3시 30분 가나자와 기차역사 부근 쇼핑센터에 도착했다. 가나자와 역을 중심으로 유통, 물류, 교통이 집적화되는 역세권으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미완성의 역사였다. 가나자와 역이 만들어지기까지 스토리는 역주변 땅이 지대가 낮아서 토목공사만 10년이 걸렸다고 했다. 유리창을 이용한 천정 돔(모테나시)을 완성하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들었다.

동경의 신간선 고속전철이 7년 후면 연계될 예정인데 그때 동경까지 2시간 30분이 걸린다. 여러 지역과 연계된 교통시설, 교통정보가 네트워크 망을 이루며 편리하게 설계된 역사였다.

상업, 쇼핑, 편익시설과 교통이용자가 접근 편리하게 신축된 역사이다. 지하와 지상의 철도 버스가 터미날에서 연계망을 이루고 교통정보,관광안내가 시스템화 되어 있었다.

가나자와 역사 입구

지상의 터미날도 구획을 구분하여 ①택시승강장 ②시내버스 정류장 ③전세 및 관광버스 터미널 ④자가용주차장이 크게 대별되어 있었다.
휴게 공간은 편안하게 쉬면서 곳곳에 친수공간을 마련하였다.
가나자와 역은 시청이 있는 구도심에서는 20 ~ 30분 도보산책 거리이다.

2007. 6. 4(월) - 방문 4일차

1. 3박 4일 여정마무리 여행봇짐 챙김 (05:30 ~ 06:20)

담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것, 챙겨야 할 것, 기억해야 할것, 남겨야 할것, 버려야 할것을 구분하는 시간이다. 여행 봇짐과 머리속에 기억을 선택하여 정리하는 시간이다.

2. 사무라이(나가마찌)지역(06:25 ~ 08:00)

나가마찌는 옛부터 번의 중신, 가신, 무사들이 살던 거리로 현재까지 토담과 옛 일본가옥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전통건축물 보존군 사무라이 마을을 탐사하면서 땀을 흘리며 긴장하기도 하고 순간 순간, 장면 장면 사진을 찍었다.

공원, 실개천 산책, 일본의 전통적 가옥이 잘 보존되고 집단적인 취락구조 원형이 잘 남아있는 중세마을의 가옥형태, 돌담길, 골목, 대문, 정문, 창문, 실개천, 오솔길, 소롯길 등 일본 가옥의 외형적

사무라이(나가마찌) 지역

디자인의 원형들을 탐색, 관찰, 구경 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사무라이 거리와 실개천, 용소보존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도심의 이색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무사마을 집들은 문화시설, 예술공방, 관광상품샵, 염색공방, 가나자와 직인대학 연습실, 청소년 수련실 등, 중세 사무라이 집들의 정기와 일본 전통문화가 배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처음 방문하는 무사마을은 성안 보호, 방어적 개념의 도로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으나 마을(町) 단위의 주요지점은 관광안내판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쉽게 찾을 수 있고, 가나자와 시의 고층빌딩인 호쿠리쿠(北國)신문사가 랜드마크처럼 하늘로 솟아 사방에서 보이므로 중심건물을 기준삼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미로 같은 골목을 숨바꼭질하며 즐겨 찾았다. 가나자와 전통건조물 보존의 핵심지역은 나가마치 마을과 히가시차야 거리이다. 전주 한옥마을과 한옥마을 태조로, 은행로와 비교하면서 '원형보존과 창조' 이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차별화된 무엇과 흥미를 유발한다.

3. 뉴그랜드 호텔에서 고마츠 공항까지 (10:00 ~ 10:30)

깨끗한 시가지 가로변, 30km 해안도로를 따라 30분만에 고마츠 공항에 도착했다. 과거에는 군사공항이었으나 지금은 국제, 국내공항으로 항공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눈에 띄게 느꼈다. 가나자와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년 간 700만 명이다. 하늘의 창이 열리지 않고 세계화나 국제교류를 외치는 것은 공허함의 연속이다. 전주는 공항이 없는 오지이며 교통 접근성이 불편한 도시이다.

전주의 호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은 500명 정도로 국제화하기에는 너무 적어 관광객의 체류는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4. 교류소감

가나자와시는 일본 여러 도시에서도 벤치마킹 대상 도시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타 도시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정책과 조례 등이 많기 때문이다. 가나자와 시청 문화정책 과장인 가와라상은 박사출신으로 시장의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책임자다. 그와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옮겨 적어본다.

질문 : 가나자와가 문화를 발전시킨 원동력과 재정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문화산업, 문화분야는 분야가 광범위하여 재정투자가 많고 문화시설, 건축물 보존사업 등은 예산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대비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답변 : 모든 일은 쉽게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나자와의 전통공연 전통기능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히가사차야 거리 나가마찌 지역) 경사면 녹지보호 및 경관시책. 역사적 문화적 유산(사찰, 신사)풍경조례 자연.역사 산책로 정비 용수보존(실개천.치수)조례 등 규정을 강화하여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존 개발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질문 : 문화재 보존, 건축물 보존을 하려고 하면 민원충돌이 많고 경제적 투자가 많은데, 어떻게 전통문화 유산을 잘 보존, 계승하고 있습니까?

답변 :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문화재 보존이 양호합니다.
둘째, 개발구역과 보존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원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질문 : 축제 중 대규모 가장행렬, 퍼레이드가 현대사회 속에서 가능한 이유는?

답변 : 행정과 민간(상공회의소, 축제 실행위원회)이 함께 하며 축제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며, 패션산업, 과자, 음식산업, 전통공예 산업 등이 경제성을 가져오고 축제의 산업화와 연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佳), 마을(町) 단위로 시에서 전통공연을 계승, 보존하도록 제도적 지원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시민의 70%가 참여하고 있다.

5. 총 론

1. 문화인력.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 · 제도 · 재단이 부러웠다.
   1) 가나자와 직인대학(문화재, 전통건축물 보존 기능보유자 양성)
   2) 우다쯔야마 공방(금박, 옷칠, 금속, 도예, 염색 등 전통공예공방, 시민공방)
   3) 창작의 숲(아마추어적 천연염색, 판화공방)

2. 문화향유 체험시설
   1) 21세기 가나자와 미술관
   2) 시민 예술촌

3. 문화산업, 문화관광정책은
   첫째, 문화인력, 사람을 키워서 문화콘텐츠를 보존 · 창조하는 일이다.
   둘째,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과 시장성을 키우며 문화관광으로 사람을 끌어들여 도시브랜드, 문화마케팅을 확대하며,
   셋째, 문화공간 사업 계획 때 보존과 개발을 명확히 한 후 도시 및 가로경관을 유지하여 쾌적한 삶의 지수로 문화를 확대하고 향유층을 광범위하게 지속시키는 일이다.

도심공원, 녹지보호정책, 가로경관, 디자인정책, 도보산책 정책 등 곳곳을 눈에 보이는 대로 스터디했다. 짧은 일정에 많은 것을 담기엔 아쉬움이 많았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등 인프라 체계(시설)와 소프트 프로그램(운영), 교육, 아동복지, 사회복지, 관광정책, 산업, 경제 활성화 정책 등 세계화와 시장경제시대, 도시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을 제도화 하고 시스템화하는 과정은 다음 기회에 접근하기로 했다. 가나자와 시와의 교류를 통해 안목을 넓히고 정보, 자료교환은 너무 만족스러웠다. 또한 시차가 없고 음식이 불편하지 않아서 짧은 기간에 적응이 쉬웠으며 이웃처럼, 옆 동네처럼 쉽게 공부했다. 지도만 가지고도 거리 찾기가 쉽고 치안이 안정되어 혼자서도 마음대로 활보했다. 또한 통역사들이 많았기에 밀착하여 일상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다리가 되어 주었다. 전주시의 많은 공무원들에게 가나자와시와의 교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실무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지방자치시대 경쟁력은 사람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 짧은 교류의 시간이 아쉬웠지만 많은 충격과 생각을 깊게 했다. 천년 전주의 꿈을 펼치기 위한 소중한 교류의 시간이었다.

제4반 일 본(도쿄, 요코하마)

| 연수국가 : 일본 (도쿄, 요코하마)
| 연수일정 : '07. 7. 2 ~ 7. 8
| 글 쓴 이 : 오 현 숙 의원
| 연수인원 : 7명
임병오 · 백현규 · 서윤근 · 김현덕 · 송경태 · 오현숙 의원, 정진호

1. 연수의 법률적 근거

의회규칙 제14호(2001년 3월 8일 제정)에 해당하는 "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2조("적용범위") 4항("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2. 연 수 국 가

일본(동경, 요코하마)

3. 연 수 기 간

2007. 7. 2 ~ 7. 8 (6박 7일)

4. 연 수 목 적

⊙ 전주시의 사회문화, 사회복지, 교통 및 도시건설과 관련된 일본 도시행정의 선진적 모범 사례 및 기법 등에 관한 최신 사례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 국제적 안목 확대와 실질적인 현장 체험을 통해 세계화에 적합한 성숙된 의정 활동과 시민 복지 증진.

⊙ 선진 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전주시의 비전과 주요 시책에 적합한 적용 및 개선 방향을 제시, 상대적 경쟁력을 강화.

5. 연 수 분 야

⊙ 지방자치의 의회제도 분야

⊙ 친환경적인 쓰레기 정책과 청정에너지 도시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관련 분야

⊙ 도시건설 관련 분야 및 교육문화 공간 확충

6. 방문 또는 연수 기관 및 시설

⊙ 나 리 타 : 치바시 의회

⊙ 요 꼬 하 마 : 쯔루미 쓰레기 소각 처리장

⊙ 사이타마시 : 하루사토 동구리 타운 장애아 편의시설

⊙ 에도가와구 :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

⊙ 무사시노시 : 무사시노 중앙 도서관

⊙ 타 케 시 바 : 삐삐 어린이집 시설
⊙ 동　　경 : 아리아케 물 재생센타 시설견학

7. 연수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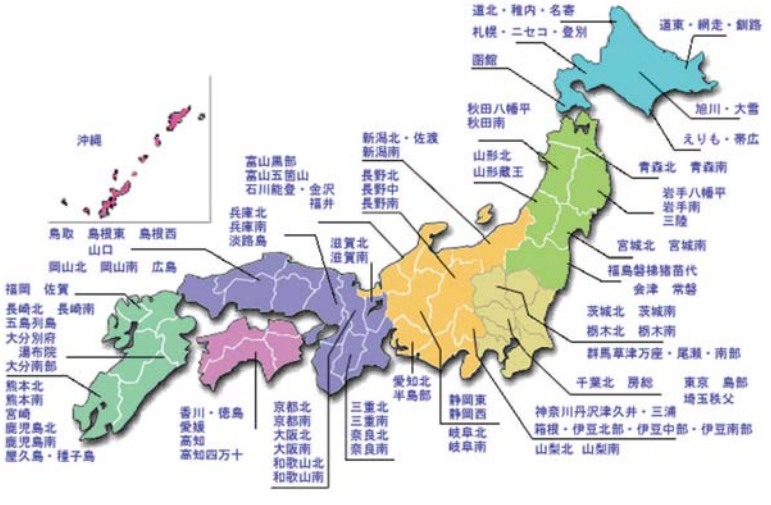
⊙ 총 7명
⊙ 임병오 의원을 단장으로
⊙ 각 위원회별 소속 의원과 직원으로 구성됨.

8. 연수일정

⊙ 일정표

날 짜	방문지/도시	방문 기관	연수활동
7. 2(월)	한국 출발(전주→인천공항) → 일본 도착(동경 나리타)		
7. 3(화)	나리타 요꼬하마	치바시의회 요꼬하마시 자원순환국	• **치바시의회 방문 및 시설 견학** • 의원선거 방식, 위원회 구성현황, 회의운영 등 • **쯔루미 쓰레기 소각 처리장 방문 및 견학**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방법 •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식 • 소각장 운영 시 불연소 쓰레기 소각처리 방법 등
7. 4(수)	동 경	사이타마시	• **동구리 타운 방문 및 견학** • 장애아 편의시설 등 운영상황 • 공동작업 운영실태 및 지원사항, • 장애아 생산품 관리 및 유통 사항
7. 5(목)	동 경	동 경 에도가와구 무사시노시 교류사업부	• **자전거 전용도로 견학** • 자전거 도로 및 지장물 설치 상태 • 시내로 이동 실태 • **무사시노 중앙 도서관 방문 및 견학** • 도서관의 운영실태 및 예산 규모, • 주민참여 방안 및 프로그램 등
7. 6(금)	동 경 요꼬하마	동 경 요꼬하마	• **삐삐 어린이 집 방문 및 견학** • 노인과 어린이들이 어울리는 산책 놀이 프로그램 등 • 운영 실태 및 추진계획 • 지역내 열린 공간으로 주민들로부터의 반응
7. 7(토)	동 경	동 경	• **아리아케 물 재생센타 방문 및 견학** • 유입수 펌프장 처리과정 • 관리본관 및 고도처리 과정 • 물 처리 실태 • 침전지, 생물 반응조, 슬러지 저류조 처리과정) • 방류수 처리 실태(도쿄만 아리아케 서운하)
7. 8(일)	일본 출발(동경 나리타공항) → 한국 도착(인천공항→전주)		

연수 대상국 소개



연수 대상국 지도

| 동 경

○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숲 사이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전통적인 믿음과 가치관의 옛 신사(神社)가 고연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으며 신록이 우거진 고전적인 풍경의 정원 속에 자리 잡은 정자와 찻집 등과 더불어 레게바나 디스코텍 등의 현대적인 오락과 시설을 만끽할 수 있으며 여행자의 어떠한 욕구도 충실히 만족시켜 줄 수 있고,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며 연평균 기온은 15℃, 연 강수량은 1,400㎜이다. 장마가 6월 중순경부터 시작되므로 봄, 가을에 여행하는 것이 좋다. 서울과 날씨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 인구 및 면적

일본 동쪽의 태평양에 펼쳐져 있는 도쿄만에 면하고 있다. 도쿄의 북부는 비옥한 관동 평야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인구는 약 1,200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일본 인구의 45%이상이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居) 등 3대 도시와 그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구별로는 도쿄가 최대이며 도쿄의 면적은 2,183㎢로 서울의 3배이며, 인구밀도는 5,482.1명/㎢로 일본 최고이다.

▶ 동경의 역사

메이지 천황은 즉위식 후에 연호를 메이지로 고치고, 에도란 이름 도쿄라고 선포함으로써 현재의 일본의 수도로 자리 잡았다. 1868년 도쿄가 새 수도로 선포되기 전에 일본의 수도는 실질적으로는 가마쿠라(명목상으로는 교토)였다. 쇼군(將軍)을 중심으로 다이묘(大名)와 무사가 거주하는 지역, 이를 야마노테로 불렀고, 상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시타마치(下町)로 불렀으며, 이것의 잔재는 현대에도 많은 지명이나 지역에서 보여진다.
도시의 과밀화 방지계획에 의해 도쿄 근교로 중고층 주민들을 위한 공동주택 대단지들이 들어서고, 일본의 현관이라고 불리우는 나리타(成田)에 국제공항을 세웠다. 17세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에도(江戶)로 수도를 옮기며 실질적인 수도가 에도가 되었다. 에도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에야스는 우선 절대 권력을 지니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먼저 행했던 것 새로운 다이묘들을 임명하는 것이였다. 그리고 다이묘를 세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별을 한 것이다. 이런 차별대우로 변방으로 내몰린 도자마다이묘들은 후에 막부의 세력이 약해지고, 쇼군의 권위가 떨어지자 가장 먼저 저항을 벌이고 정권을 쥐게 되는데, 훗날 이 지역이 메이지유신의 주역들의 출신지인 죠슈, 사츠마, 한 지역의 사람들이 된다.
막부시대에는 무사계급과 농민을 철저히 구분했고, 이 당시의 신분제도인 사농공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병농분리 정책으로 조카마치(城下町) 즉, 성 아래 마을이 생기며 쇼군이나 다이묘들의 일을 봐주며 행정 일을 하며 성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1607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후 9년이 지나, 메이지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은 우방의 관계로, 조선통신사가 12번 왕래를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외국과는 교류를 하지 않고 쇄국정책을 취한 일본은 1853년 미국 함을 끌고 온 페리제독에 의해 문을 열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다.

에도시대는 쇄국정책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부키(歌舞技)등과 같은 일본전통적인 문화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메이지(明治) 시대에 이르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도쿄의 긴자(金座) 거리에 빨간 벽돌의 서양식 건물이 늘어서고, 도로에는 가스등이 설치되는 등의 생활전반에 걸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도쿄 곳곳에 남아있는 건축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쿄 시내를 걸으며 그 당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다.

제1편 치바시의회

1. 연수기획 내용

일본 치바시의회의 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것을 듣고 의회내의 의원활동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치바시의 면적은 272.08㎢, 인구는 92만8천명이다. 공무원 수는 8,000명 정도이다. 전주시의 인구가 63만이고 공무원 수는 1,800명 정도이다.

치바시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당 110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고 전주시는 공무원 한 사람당 350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기본적인 차이에서부터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나오지 않나 싶다.

2. 치바시의회의 구성

치바시의회의 의원은 54명이며, 정당별 의원구성은 자민당 21석, 공명당 8석, 민주당 9석, NET 6석, 공산당 6석, 신세치바 4석이며 이중 여성의원은 11명이다. 이 11명의 NET 6명 모두가 여성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자치 운동을 통해 당선된 의원들이다.

장애인 의원은 없다고 한다. 또한 10선의원이 2명으로 년수를 계산하면 40년 가까이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놀랍기까지 하다.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총무위원회, 보건하수위원회, 환경건설위원회, 경제교육위원회, 도시소방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3. 의장 및 위원장 선거방식. 임기

전주시의회는 4년의 임기중 2분기로 나누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선거를 교황식 선출방법 진행한다. 선출방식의 비민주성과 공약을 전혀 내걸지 않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출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하였으나 치바시 역시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한다고 한다.

임기는 1년이며, 본회의장의 좌석은 전주시와는 다르게 당선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앉는다.

4. 본회의장 발언 형식

첫 번째 질의는 발언대에 나가서 하고 두 번째 질의부터는 좌석에 앉아서 진행한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문제에 세 번까지의 질의를 할 수 있고 한 의원당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모든 안건이 상임위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지는 우리와는 틀리게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이 되어서 장점으로 작용될 것 같다.

5. 해외연수 진행방식

임기 중 1회 진행하고 장소는 치바시와 자매 ·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도시나 가고 싶은 곳을 택하여 진행하는데, 요즘은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기도 한다고 한다.
연구하고 준비하여 가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해외연수이지 않나 싶다.

6. 특별한 조례

치바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길거리금연조례를 실시하고 있어 도로, 지하철역 등에 흡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고 한다.

본회의장 정면이다.
국기와 나란히 시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의장석 또한 의원들과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의회 문양이 정중앙에 아주 크게 붙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의원석과 의장석의 높이 차이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의 구조와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이 든다. 본회의장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중압감과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그 예이다.

의원의 활동이 출신지역이나 상임위에 소관된 부서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 상관없이 활발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전주시 전반에 대하여 논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제2편 츠루미 쓰레기 소각장

1. 연수기획 내용

전주시에는 완산구 상림동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 있다. 2007년 3월부터 가동하고 있고 이 시설을 가동하여 전기를 재생산하여 2007년 예산으로 8억3천이 세입으로 잡혀 있다.
츠루미 소각장에 방문하여 처리방식과 분리수거를 비롯한 쓰레기 수거 방식과 재생한 에너지의 활용방식에 대해 벤치마킹하여 전주시 쓰레기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쓰레기소각처리장 츠루미 공장 현황

부지면적은 61,053.95m 이고 총사업비는 518억엔이고 처리능력은 1,200톤/일 (400톤,3대)이다.
츠루미시가 있는 곳은 요코하마현이다.
이곳에서는 2001년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161만톤 이었으나, 쓰레기30%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2003년에는 132만톤, 2005년에는 106만톤으로 전체적으로 33%를 줄이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3. 요코하마시의 G30 운동

(Gomi -로마문자의 쓰레기, Garbage- 영어의 쓰레기. Genryou-로마문자의 감량, 30-쓰레기 감량목표의 30%)

요코하마시의 2001년에 배출되는 쓰레기량은 161만톤 이었다고 한다. 이후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2003년에는 132만톤, 2005년에는 106만톤으로 전체적으로 33%를 줄이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G30운동의 조직은 시행정이 중심이 되어 시장을 본부장으로 부시장, 회계책임자, 각 지역 담당자들이 모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 구의 감량 목표치를 심의, 시청사나 구청사의 쓰레기 제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과 사업자에게 G30운동에 대해 호소하고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을 담당한다.

이 운동의 기본적인 것은 배출자와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아래 시민沼獰汰伴행정의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함께 가는 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쓰레기봉투를 의인화해 만든
요코하마 G30플랜의 마스코트

요코하마 G30의 로고

4. 쓰레기수거 방법

[분리배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10가지 종류로 세분해서 하고 있었다.

1. 음식물, 일회용기저귀 등 타는 쓰레기
2. 건전지
3. 스프레이 통
4. 안타는 쓰레기
5. 플라스틱 용기포장
6. 캔, 유리병 및 패트병
7. 작은 금속류
8. 폐지 (신문, 골판지, 잡지, 종이팩, 기타 종이를 나누어서 수거)
9. 헌옷
10. 대형 쓰레기로 세밀하게 나누어지고 각 쓰레기마다 분리방법이 자세하게 홍보물에 나와 있다.

[대형쓰레기]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청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반출한다. 눈에 띄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 세대, 장애세대, 한부모세대등 저소득층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수거하지 않는 것]

공사로 인한 쓰레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량의 쓰레기 등은 본인이 처리시설로 가져가거나 인가를 받은 회사에 처리 의뢰를 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점은 가전제품은 제작한 회사에서 수거해 가야하는 책임이 있어 구매한 곳에 연락하면 무조건 수거해 가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야산이나 농촌에 가보면 헌 냉장고나 세탁기 등이 남몰래 버려져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제작한 회사가 수거까지 하는 방식은 정착되어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5. 재생에너지의 사용

전주시와 마찬가지로 재생한 전기는 활용하고 활용하고도 남은 전력은 판매하였다. 발생되는 열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전주시의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찜질 방에 발전열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도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다.

6. 생각한 점

소각장 모형 앞에서 소각장 공장장님과 함께

전주시의 쓰레기 정책을 봤을때 처리장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매립장, 소각장 등 제일 마지막 단계의 처리 시설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 되었다. 요코하마의 쓰레기 정책은 시에서부터 계획하고 시민과 사업자들이 [요코하마 G30] 운동의 주제와 함께 모두가 참여하여 몇 년 사이 쓰레기 발생량을 33%를 줄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는 시민의식,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거까지 책임지는 제도, 재활용품을 세밀하게 나누어 수거하는 방식과 재활용을 하는 업체까지 연결되는 체계 등 다각도에서 준비된 결과인 것이다. 시민이 함께 하여 만든 이 결과를 보고 전주시도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운동을 벌여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요코하마G30 이라는 구호가 있는 공장 앞에서

제3편 동구리 타운(도토리 학교)

1. 연수기획 내용

연수기획 내용 -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신 장애인들의 자활시설을 방문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편의시설,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에서 만든 생산품의 유통 등을 중점적으로 연수한다.

2. 도토리의 집 현황

건물 평수는 45평이고 12명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공동작업장을 이용하고 있다.
작업대의 한쪽에서는 고양이 인형과 아크릴수세미를 만드는 작업을 5명이 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7명이 전선 재활용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곳을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 4명이 근무한다 .
도토리학교는 자그마한 시골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애인시설에 편견이 있는 우리와는 달리 너무나 평온한 분위기의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이 인형과 아크릴 수세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양이 인형을 만드는 할머니께 하루에 몇 개씩 만드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하루에 5~6개를 만드신다고 했다. 인형을 만들기 보다는 즐겁게 일하는 것이 더 중심이라는 답변을 하신다. 할머니는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작업량보다는 함께 어울리며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즐거우신 것 같았다.

완성된 고양이 인형과 아크릴 수세미이다. 이 완성품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판매된다고 한다.

전선 작업대의 모습. 오래된 전선을 구리와 분리하는 작업을 하여서 회사에 납품을 한다.
폐전선이 이 시설로 와서 작업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회사로 납품되는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나온 '도토리 학교'라는 비디오를 볼 기회가 있었다.

중복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힘겹게 아이를 키우다가 포기하려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내용, 장애아를 위한 재활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들이 나서는 내용, 지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발 벗고 뛰면서 장애인 재활시설을 만드는 과정을 눈물겹게 그린 만화영화였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었다.

주민들의 힘을 모아 만들게 된 감동적인 영화 속 도토리학교에 가고 싶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여행사를 통해 섭외를 부탁했다.

과정 중에서 확인을 몇 번 했지만 도토리학교가 맞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이름은 맞는데 주민운동을 통해 만든 도토리학교는 멀지 않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였다.

3. 느낀 점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근처에 거주, 전차를 타고 1시간 30분이 걸려서 오는 분, 자전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매일 작업장에 온다고 한다.

처음 작업장에 들어 섰을때 낯선 우리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장애인이 있었다. 익숙해지기까지 주변에 앉은 장애인들이 타이르기도 하면서 감싸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분도 있었고 심하지 않은 분도 있었는데 작업의 공정에서도 적절하게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장애가 심해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존중되어 생생하게 활동하게 하여 풍부한 인생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작업장의 민주적인 운영 그리고 지역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에 열린 시설이라는 것, 장애인의 사회참가와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이곳의 이념과 같이 장애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습득하고 있는것 같았다.

제4편 자전거 전용도로

1. 연수기획 내용

자전거는 도시의 교통문제를 보았을 때 주차문제와 환경오염이 완화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전주시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하여 86.2%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자전거타기 확산 운동을 펼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경사도가 높은 노선에서는 노약자나 여성들이 이용이 어렵거나, 도로에 접한 상가 등에서 물건 적치로 인한 안전위협과 도로가 중간에 끊기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이에 자전거를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일본의 에도가와구를 방문하여 자전거도로의 이용 현황과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전주시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2. 에도가와구의 자전거 도로와 이용

한눈에 보더라도 이곳의 자전거 이용 모습은 생활화가 되어 있었다. 평상시 자가용의 이용은 하지 않고 주말에나 이용한다고 한다. 집에서부터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역에 주차를 한 뒤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에도가와구의 공무원 두분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름에도 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강에 둘러싸인 이곳은 강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자전거 앞부분에는 바구니가 달려있고 뒤에는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의자가 달려 있는 자전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자전거가 이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자전거 주차장

각 역 주변에는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자전거를 방치할 경우 보행자나 장애자, 긴급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하다는 판단아래 에도가와구에서는 조례를 정하여 주요 역 주변을 자전거 방치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구에서 철거하고 철거비용은 자전거 주인이 부담하게 한다.

4. 자전거 지하 주차장

도심 대로변에 오토바이 주차 장면

도심 대로변에 자전거 주차 장면

일본을 연수하는 기간 중 건물주변, 고가도로 밑에 자전거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에도가와구에서는 지하로 된 자전거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여 현장 방문을 하였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된 이유는 자전거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 지하 주차장은 지하 15m 깊이로 공사하고 있었다. 2008년 4월에 완공되면 2,8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에 자전거를 넣으면 자동으로 지하로 내려와 주차를 하고 ID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자전거가 다시 올라오는 방식이라고 한다.

이 지하 주차장의 공기는 6년이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으로 2년 반으로 공기가 줄었다고 한다.

5. 느낀 점

자전거를 왜 많은 시민들이 외면을 하는가?
그것은 자전거 도로의 여건이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 불편한데 있다.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3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해 놓았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전주시 자전거 도로이다. 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홍보행사 보다 전주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황파악부터 해야 한다. 경사도가 얼마인지 도로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선행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전주시 자전거도로에 대해 생각하니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진다.

지하 자전거 주차장 공사현장

제5편 무사시노 중앙도서관

1. 연수기획 내용

전주시에는 5곳의 시립도서관이 있다. 무사시노시의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방식과 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밴치마킹 하고자 한다.

2. 무사시노 중앙도서관 현황

무사시노시의 인구는 131,675명이고 시립도서관은 3곳이 있다.
이 중앙도서관의 1일 이용자수는 1,800~2,000명 정도이고 토요일는 2,300명이라고 한다.

지하2층 지상4층의 건물이고, 45만 5천여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고 1년 도서구입비는 7,700만엔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도서를 대여해 갈 때만 등록을 해야 된다.

3. 무사시노 도서관의 좋은 프로그램

① 장애인을 위한 도서대출 프로그램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직접 도서관의 방문이 불편할 경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가정에 도서를 배달해 준다.

②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무사시노시에서는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북 스타트 사업을 한다고 한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교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림책을 통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책과 함께 부모와 아이의 정을 한층 높여 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사업은 보건센타에서 3~4개월, 3세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는데 보건센터에서 북 스타트를 실시하고 도서관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회나 부모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견학 중 작은방이 있었는데 유아를 데려가도 책을 볼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책상과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지하1층에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책꽂이가 있어 많은 책을 보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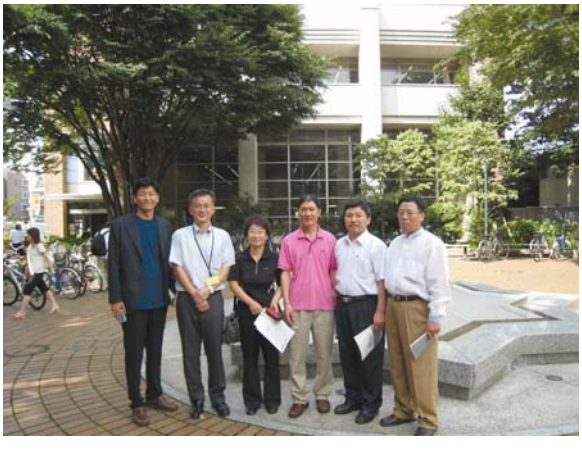
이 도서관은 요즘 중요시 되고 있는 IT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한다. 인터넷은 빠르기는 하지만 정보가 틀린 경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도서관 시설은 일본이 앞섰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운영의 기술은 한국이 앞서고 있어서 이것을 보고 배워 도서관에 접목시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한사람 당 평균 독서량이 0.8권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6.1권이라 한다.

이것은 책을 읽으면 좋다는 당위적인 구호보다는 일본의 경우처럼 행정체계와 맞물려 어려서부터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사시노 중앙도서관 관장의 설명을 들었다.



무사시노 중앙도서관 앞 관장님과 기념촬영

제6편 삐삐 보육원

1. 연수기획 내용

전주시에는 보육시설과 노인시설이 있으나 함께 있는 시설은 없다. 전주시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과 아이가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이 곳은 주택이 주를 이룬 재개발된 중산층 거주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또한 평균연령이 39.4세로 주로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삐삐보육원이 설립된 것도 젊은 부모들이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한다. 시설투자 역시 지역 주민이 하였고 처음에는 인가받지 않고 설립한 사람들끼리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공간은 1층은 어린이집으로, 2층은 노인들의 공동주거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2. 삐삐보육원

어렸을 적 '말광량이 삐삐'라는 외국영화를 많이 본 기억이 있다. 이 보육원의 이름이 '삐삐'인 것은 이 영화에 나오는 삐삐처럼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생기 있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연령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며 2층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계셔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마루는 삼나무를 사용 하였고 가구나 벽은 환경호르몬이 발생되지 않는 천연소재를 사용하였다.

장난감 또한 나무소재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장난감의 이용은 되도록 배제한다고 한다.
보육원 안에 식당이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음식에 대한 재료를 가려서 요리하는 방법으로 조리한다고 한다.

이 곳은 일시보육도 하고 있다. 15명 정도의 일시보육 아동이 있다고 한다. 부모가 부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보육원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첫아이를 낳고 육아를 불안하게 생각되는 부모, 일을 시작 전 아이와 함께 하는 보육원 체험을 하고 싶은 부모, 같은 또래의 아이와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 분, 보육원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3. 2층 노인시설

천정이 높고 깨끗한 아늑한 거실

햇볕이 잘드는 창문 옆 침실

보육원 병설의 그룹 홈 노인 시설이다.
총 9분이 생활하고 있다. 천정에 창이 나있어 전체적으로 환한 느낌 이었다.

가정적인 분위기 이고 보육원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오감을 자극해 재활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건강한 아이들과 즐겁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장점인 시설이다.

거실 한편에서는 칠월칠석을 맞이하여 장식할 색종이를 접고 계시는 노인도 계셨고 우리에게 일본 전통악기를 연주해 주시기도 하였다.

일본에는 개호보험제도가 있다. 이 국가보험제도는 노년을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고, 노년이 되면 건강상태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이곳에 계시는 분의 경우 보험금으로 25만 엔을 지원받고 개인이 한달에 2만 엔 정도의 부담을 하고 생활한다고 한다.

노인을 돌보는 스텝이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기가 노인이 되면 살고 싶은 시설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4.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가나가와 네트워크의 기본 정치이념은 정치참여 확대와 생활정치 추진, 시민 민주주의 정착이다. 또한 5가지 정치 활동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첫 번째로는 조직 활동과 자원봉사로 정치와 선거를 행한다. 돈이 드는 선거가 이권 정치를 낳았기 때문에 조직 활동과 자원봉사로 선거나 일상 활동을 한다.

'선거에는 돈이 든다'라고 하는 '상식' 을 뒤집어, 시민 · 여성들이 선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시민이 조직 활동과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하여, 정치에 참가하고 이것에 의해 시민 정치를 폭을 넓힌다.

두 번째로는 시민이 정책을 만들거나 다양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 · 의회 정보를 공개하고, NET의 활동과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신뢰 있는 정치를 진행시킨다.

세 번째는 미니포럼을 진행한다. 지역의 문제는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관계자 · 전문가 · 공무원 등과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낸다.
의회만이 자치의 구조가 아니고 시민이 의회에 조례 · 제도를 제안할 수 있는 직접 청구 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자치의 구조를 늘려 간다.

네 번째로는 의원의 활동비를 기부한 뒤 지역NET의 활동비나 연구회비, 선거적립금으로 사용하고 시민의 회비, 조직 활동, 바자회를 통하여 의원의 보수를 받는다.

다섯 번째로는 의원은 2기 8년에 교대한다. 의원을 직업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세대교체를 진행시켜 새로운 의원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원 경험자가 많아질수록 시민사회가 강하게 된다.

5. 배 울 점

이 보육원을 방문 하였을때 법인의 이사장과 간사가 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 삐삐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모법인의 간사는 가나가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보육원 병설 홈 노인 분들과 함께

시민운동가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관의 지원을 받아 이상적인 복지시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풍요로운 시민생활은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가 있어야 가능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하다는 생각아래 지역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는 곧바로 정치에 반영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활정치라는 말을 요즘 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곳이야 말로 보육의 문제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지역운동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정치라는 것이 나와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삐삐보육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활동해온 가나자와 네트워크의 활동 구호를 생각해 본다.

'정치를 바꾸는 정치, 시민에게 친근하고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제7편 아리아케 물 재생센타

1. 연수기획 내용

물 재생 센타를 방문하여 하수처리 방식에 대해 알고 하수를 재생하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보고 전주시의 하수 처리한 물의 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 아리아케 물 재생센터 현황

아리아케 물 재생센터는 임해 부도심 클린 센터내에 설치되어 있고 1995년 9월부터 일부 가동 후 1996년 7월에 도쿄에 있는 13개소의 처리장 중 12번째로 가동 하였다.

빗물과 하수를 서로 다른 관으로 처리하는 분류식 방법이고 빗물은 바로 바다로 흘려보내고 하수는 고도처리 방식을 이용해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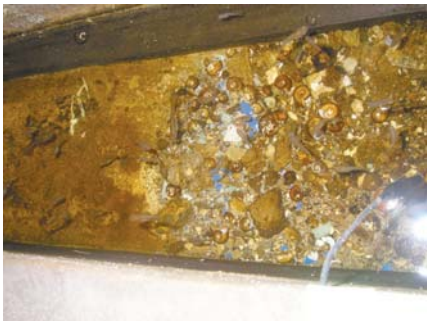
재생된 물은 바다에 방류하거나 일부를 오존처리를 한 후 센터내의 시설의 청소나 기계의 냉각, 임해 부도심의 빌딩 등에 화장실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3. 연수 내용

전주시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를 열려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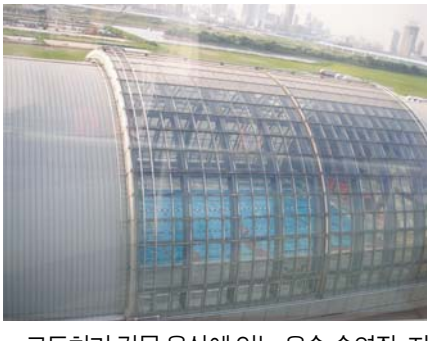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도처리 추가 공사를 하여서 악취는 줄어 들었다고 하나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리아케 물 재생센터의 하수 처리시설은 모두가 지하에 있는 것이 특징 이어서 악취 걱정은 없었다.



하수처리의 마지막 공정에 있는 물길에는 센서가 있어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물의 깨끗함을 알려주기 위해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다. 비단 잉어처럼 큰 물고기를 많이 보아왔던 터라 이 물길을 따라 5cm되는 작은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신기 하였다.

유입된 하수와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반응조의 모습



고도처리 건물 옥상에 있는 온수 수영장. 지붕이 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열고 닫을 수 있다.

지하에 하수처리 시설이 있어 지상에는 하수도 박물관, 전망대, 온수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테니스코트 16면의 시설이 있다. 이 시설들은 시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 곳을 둘러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재생수 사용은 기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재생수를 이용하려면 하수 처리시설을 만들 때부터 재 생수 공급시설까지 마련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주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듯.

4. 슬러지 처리 방법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슬러지 소각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의 문제로 요즘 고민이 많다.

이 곳은 슬러지를 이용하여 석탄을 대체 할 수 있는 탄화물을 만들어 연료로 공급하거나 재활용하여 인도블럭이나 타일 등을 만든다고 한다. 슬러지 소각시설을 짓는 것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과 자원의 재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슬러지를 이용하여 만든 재생용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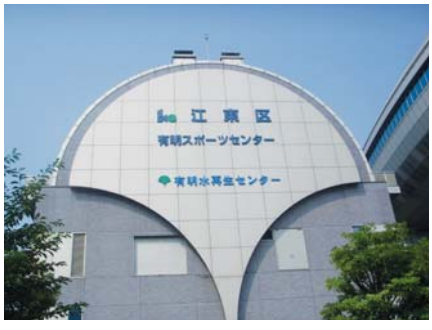
재생센터 안의 슬러지로 만든
인도블럭이 깔아져 있다.

시설을 둘러 보기전 재생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5. 활용할 점

도쿄에서는 이렇게 재생된 물을 이용하여 '물 뿌리기' 대작전을 펼치고 있다. 도쿄의 여름 온도를 조금이라도 내리기 위한 시도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로수 물주기, 도로 물 뿌리기 등의 행사를 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물을 재생 센타에서 재생된 중수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동경의 하수도국은 물의 순환을 통해서 도시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 환경의 보전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처리된 물을 그냥 방류하는데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전국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도시로 유명해진 전주를 생각 할 때 몇 대의 살수차를 이용하여 도로에 물 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주시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로 이러한 운동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제8편 기타(야마시타 공원,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1. 야마시타 공원

신도시 조성지구 미나토 미라이에 있는 야마시타 공원이다. 도심속에 커다란 공원이 있는 것이 신기하였다.

이 공원은 관동 대지진 당시 재해 피해로 발생된 기왓장, 돌, 흙 등을 매립하여 조성한 곳이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 가족, 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2. 차이나타운 거리

새우깡과 오징어 땅콩을 선전하며 배용준 사진과 장금이의 이영애 사진을 붙여 놓았으며 우리나라의 해표 김, 삼부자 김, 신 라면, 육개장 컵라면 등이 진열되어 있어 순간 반가움과 뿌듯함이 들었으며 같이 동행한 일행들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요코하마시의 차이나타운 거리를 방문하였다.

한참을 걸으면서 오랜 역사를 지닌 거리라는 것이 느껴졌으며 차이나타운은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상권이 형성된 거리이다.

전주시에도 차이나타운이 있다. 구도심에 있는 거리 한곳을 정하여 차이나타운을 만든다는 계획아래 조형물도 세우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하였으나 지금의 전주시 차이나타운은 조형물로 봐서 차이나타운이지 특색 있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곳을 방문하며 느낀 점은 차이나타운 거리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생활을 하고 살기위한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이나타운의 형성이 되는 기본적인 토대부터 마련되지 않고서는 차이나타운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주시 차이나타운의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활성화된 차이나타운 거리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였다. 왼쪽 그림은 차이나타운거리의 유명한 만두집이다. 이곳은 항상 사람들이 만두를 사기위해 줄을 길게 서 있는 다고 한다.

차이나타운 만두집 앞에서 기념으로

3. 차 없는 거리

4차선 도로에 차가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넓은 도로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으면서 쇼핑도 하고 파라솔 밑에서 쉬기도 하면서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이 거리는 평일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차량을 통제하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문화행사를 알리는 포스터 등이 눈에 띄어 이곳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전주시에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차가 다니기도 하는 등 본래 목적했던 바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4차선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여 걷는 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 밖의 광경이었다. 틀에 박힌 사고보다는 틀을 깨는 사고 전환의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연수 총평

6박7일간의 연수일정을 통하여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진행하기 전에 연수 대상지에서 배워올 것을 확실히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 보험제도의 정착이 잘 되어있는 일본의 경우를 우리의 복지체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가 일부의 구성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것, 또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일 것이다.

일본 연수를 진행하면서 안내와 설명을 맡은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행정에서 계획하고 안을 내어 이것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기본인식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닌가 싶다.

편 집 위 원 장 김창길 의원 (운영위원회부위원장)
편 집 위 원 유재권 의원 (행 정 위 원 회)
김현덕 의원 (사 회 복 지 위 원 회)
박혜숙 의원 (문 화 경 제 위 원 회)
양용모 의원 (도 시 건 설 위 원 회)

제8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해외연수기

발 행 일 2007년 11월
발 행 인 의장 정우성
발 행 처 전 주 시 의 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서노송동 568-1)
TEL : 063-230-3797 FAX : 063-230-3657
http://council.jeonju.go.kr

기획 · 디자인 · 인쇄

전주 영광기획 · 인쇄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60-16
TEL : (063) 254-2317
FAX : (063) 275-2317
E-mail : jykprint@hanmail.net